

#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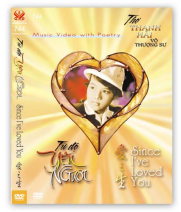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 2003년을 맞아 스승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 743 부처의 슬픔

### 744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



〈어울락어 가사 + 9개 국어 자막: 어울락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부처의 슬픔’과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에 실린 모든 곡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영롱한 시를 곡으로 옮긴 것이다. 사랑의 경이로움, 이별의 괴로움, 그리고 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칭하이 무상사의 시구는 독자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 영혼을 높이 고양시킨다. 어울락 출신의 결혼한 작곡가들과 유명한 어울락 가수들에 의해 작곡, 공연된 이 시들은 뮤직 비디오 형태로 미국과 어울락에서 완성도 높게 녹음되었다.

뮤직 비디오 ‘부처의 슬픔’과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를 통해 시와 음악, 사랑, 그리고 영성의 매혹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시길.

동수들의 요청에 따라 2003년 초봄, 스승님의 ‘수행 노트’ 시리즈 제1호가 출간될 예정이다.

“내편의 체험은 남들에게 발설하지 마라!”는 것으로 인해 혹시 그 행복감과 체험을 함께 나눌 공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이제 수행 노트가 자신의 속내를 열어 보일 그 공간이 되어 줄 것이다! 내편의 깨달음과 영혼의 기쁨, 그리고 기도에 대해 스승님께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응답하셨던 불가사의한 일화들과 명상 중에 체험한 신비롭고 초세계적인 여행 등 그 모두를 고스란히 적을 수 있으며, 또한 빈 공간을 통해 과거에 글로 묘사할 수 없었던 느낌과 체험들도 그림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여러분 개인의 경험에 말이다!

일본 아마(亞麻) 섬유지로 제작된 표지, 무광택 박판 속에 잘 보호된 우아하고 화려하게 복고풍으로 인쇄된 속지 등 이 모든 특색들로 인해 이 수행 노트는 가장 충실한 ‘애기를 들어 주는 벗’으로서 보다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노트에는 2003년과 2004년 달력이 실려 있으며,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이 디자인된 각 페이지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된 감로법어가 1구절씩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다. 또한 중성적인 디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마음을 터놓을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 노트는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기도 하며, 그 안에 담긴 그림과 부채, 채색 돌, 시들을 통해 스승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말없이, 하지만 강력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 668 보이지 않는 길

1999. 11. 26. 남아프리카 더반 강연  
〈영어 + 줄루어 동시통역 + 24개 국어 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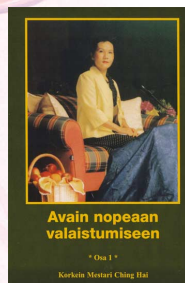
사람들은 신께 기도하고 응답을 얻는 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종종 궁금해한다. 스승님께서선 물질세계의 시간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애초에 이 행성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을까? 또한 그에 따르는 영향은 무엇인가? 바로 이 DVD에서 이 주제들에 대한 스승님의 상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DVD에서 스승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전해 주셨다. ‘현대인은 천국과 인간 세상에서 동시에 살 수 있는가?’, ‘신과 교류하지 않고 두뇌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고통스러운 까닭은?’, ‘괴로움, 학대,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내편의 참된 평화를 발견할 것인가?’, ‘스승님의 명상 비결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신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 중국어 포켓판



칭하이 무상사는 수행을 일상생활과 잘 접목시키기 위해 딱딱한 교리에서 벗어나 전세계 각국 언어로 출간된 다양한 자료에서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엄선해 영감 어린 화술로 편안하게 풀어 말씀하신다. 스승님의 깨달음에 넘친 따뜻한 해설을 통해 각 이야기들은 한층 더 깊은 의미를 전하게 된다.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에는 37가지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생동감 넘치는 삽화와 함께 담겨 있으며, 이 이야기와 그림은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 터키어판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 핀란드어판  
『즉각 깨닫는 열쇠 1권』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천국에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의 신은 함께 설 수 없나니.”

~칭하이 무상사~



출판일자 : 2003. 6. 30.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앞표지 안/ 46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수행 노트/ 책/ 비디오테이프

## 2 특별 보도

세상에서 죽고 천국에서 거듭나라

## 5 시

놓아 버려라

## 6 수행의 길목에서

스승님의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 7 특집 기사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Music Week)' 과 로스앤젤레스 시가 칭하이 무상사를 표창하다

## 10/ 19 감로법어

## 11/ 25 이야기 세상

스승님의 정교한 안배/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났어도

## 12 제일선에서

천국의 관문 - 남미 페루 홍법 종합 보도

## 15 매체 보도

뉴욕 시, 법령을 강화시키다

## 16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왜 불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가

## 20 수행 일화

꿈에서 깨어나니 다음 생은 없으리!

## 21 스승님의 농담

부전자전/ 이렇게 착할 수가!/ 응급실 괴담

## 22 신기한 감응

꿈에서 업장을 없애 주신 스승님/ 생명의 은인, 흰옷 입은 여인  
축복받은 아프리카

## 2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인병(聖人病)에서 벗어나라

## 29 진실한 이야기

번뇌는 보리다

## 31 골라 뽑은 수행문답

수많은 천사: 수호신과 여신들/ 부정적인 힘의 본질  
하늘의 음악인가, 창날의 음악인가

## 34 다채로운 이벤트

태국/ 호주/ 대한민국/ 불가리아/ 독일/ 베네수엘라/ 캐나다/ 칠레  
미국/ 포모사

## 44 단신

## 45 영화 감상

현신의 본보기

## 47 사랑의 실천

콜롬비아/ 미국 하와이/ 코스타리카

## 47 감사 편지

콜롬비아

## 49 행사 메모

## 50 관음 웹사이트

## 51 전세계 연락처

## 56 스승님 말씀

수행의 겨울엔 정신적 보약이 필요하다

## 뒤표지 안/ 무상예술

최신 유행의 멋진 겨울 평상복

## 뒤표지 밖/ 스승님의 최신 사진

# 세상에서 죽고 천국에서 거듭나라

## - 2002년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 행사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승님은 우리가 내면의 신의 왕국에 집중하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2002년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플로리다 센터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국제 선오는 신에게 전심으로 집중하고 수행의 진보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 천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

지금까지의 선 행사와는 달리 이번 선에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스승님은 아무도 예기치 못한 놀라운 안배를 통해 동수들에게 많은 놀라운 가르침을 시사해 주셨다. 예를 들어 첫째 날에는 선 기간 동안 금언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작업 팀과 공무를 위한 말을 나누는 경우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여타 선 행사와 달랐던 또 다른 점은 사제시간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스승님은 각 나라별, 민족별로 한두 차례만 접견하셨을 뿐이다.) 그 밖에도 선 참가 연령에 제한을 두어 선 기간 동안 노인 동수나 어린 동수들의 발병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생기는 산만함을 통제했다. 또 공연과 크리스마스 파티도 없었다. 이 모든 혁신적인 변화들은 참가자들에게 귀중한 공부가 되어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는 동시에 세속적인 일을 완전히 놓고 신에게만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기쁨이 가득한 행사 분위기는 이전 명절 선 행사 때와 똑같았지만, 묵언과 내면으로의 집중이 강조됨으로써 더욱 진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센터는 밝고 다채로운 장식들로 인해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백색의 작은 불빛들이 꽃줄에 달리고, 잔디와 나무에는 각양각색의 반짝이는 조형물들이 줄줄이 장식되었다. 스승님의 경서와 테이프, 예술 창작품, 천의 밋 보석들은 가지런하고 화려한 부스별로 생동감 있게 진열되었다. 약 1,400여명 가량의 동수들이 멀리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등 여러 지역에서 날아와 이 행사에 참가했다.



### 무언의 축복으로 시작하다

선 행사 첫째 날, 스승님은 오후와 저녁 명상 시간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셨지만, 명상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떠나셨다. 이날 스승님은 동수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로 인해 모두들 이번 선이 내면의 신의 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배된 침묵의 선 행사임을 느낄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인 다음날 오후, 스승님은 어울락 동수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이번 선에 어린이들과 노인 동수들이 참가할 수 없었던 연유를 설명하셨다. 아이들은 놀기 좋아하기 마련이라 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 연로한 동수들의 경우에도 날씨가 변덕스럽고 오랫동안 명상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스승님은 우리에게 마음 좋은 스승을 원하는지, 아니면 진실로 ‘좋은’ 스승을 원하는지 물으시면서 당신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며 신의 뜻에 따라 선 행사 규칙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했다고 덧붙이셨다. 명상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수행과 선 행사의 목적이 ‘진아를 찾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시면서, 진지하게 명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에는 신실하고 장시간 명상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도록 했다고 말씀하셨다. 또 스승님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끌어올려야 하며, 만약 우리 자신을 먼저 끌어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높이 올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셨다. 또 우리는 열심히 명상해야 하며 수행에 진지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도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 신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다.

스승님은 길거리를 떠도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스승님은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면 음식과 돈을 주시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스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하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답이 되는 것이다. 또 설령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 햄버거를 사야 하더라도 당신은 기꺼이 그 업장을 받아들이신다.

이어서 스승님은 모든 스승들이 100%의 깨달음에 이른 것은 아니며, 현재 인도에 생존해 있는 한 젊은 스승만이 관음법문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의 70%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세계 유명한 스승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공개하셨다. 스승님은 100%의 깨달음에 이른 스승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관음 가족이 크게 깨달았다며 많은 동수들이 60%의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스승님은 무척 기뻐하셨다. 한 장주는 원래 40%의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입문했는데, 스승님의 도

움으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60%에 도달하게 되었다. 스승님은 20%의 진보는 대단한 것이라고 하시며 스승과 귀중한 법문이 없다면 우리는 단 1%의 깨달음도 올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스승님은 규칙적으로 명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셨다. 두뇌가 명상하기를 거부하면, 두뇌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를테면 ‘명상 시간’을 ‘휴식 시간’이나 ‘이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스승님은 또한 오늘날 명상이 매우 인기가 높는데, 그것은 명상을 하면 몸도 더 건강해지고 두뇌가 총명해지는 등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 우리가 명상을 하면 주위의 모든 면들이 이로움을 얻는다. 한 예로 다 죽어 가던 작은 식물 옆에서 스승님이 명상하시자 그 식물은 그로 인해 소생하더니 아주 건강해져 급속도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로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따라서 명상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처럼 여겨야 하며, 그것은 누구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두뇌는 ‘진귀한 보석’이나 ‘쉬는 시간’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좋다고 반응할 것이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몸의 세포가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연락인과의 문제나 다른 이유를 핑계 삼아 두뇌가 단체명상 참여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 진정으로 ‘좋은’ 스승

스승님은 어울락 동수들에 이어 12월 25일 밤에는 중국 동수들을 만나셨다. 이 자리에서 스승님은 귀중한 선 행사 기간 동안 오직 신만을 생각해야 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신에 대해 진정으로 신실한 사람들만이 선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말씀



하셨다. 이어서 스승님은 단지 마음 좋은 스승이 되고 싶진 않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스승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또 스승님의 사명은 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호인처럼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다.

이 외에도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가구점에서 겪으신 일을 예로 삼아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푸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주면, 다른 이들을 돕는 기쁨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보여 주는 기쁨, 그 두 가지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며 말씀을 맺으셨다.



## 사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12월 26일 스승님은 서양 동수들과 기타 다른 나라 동수들을 만나셨다. 스승님은 엄격한 규정에 대해 미안해하시면서 신이 스승님께 호인이 아닌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을 지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 이어서 수행과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선에 참가할 때에는 오직 신과 함께 있어야 하며 두뇌가 가족, 혹은 다른 동기로 채워져 있어선 안 된다고 하셨다. 또 모든 것을 놓고 신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 예로 스승님은 신의 뜻에 따라 머리카락 색과 헤어스타일을 정하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마치셨다. “신에게 귀기울일 때 삶은 보다 단순해집니다.”

다음으로 스승님은 지혜가 없는 사랑은 골칫거리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며 스승님이 기르시는 새의 집을 만든 장주들을 예로 드셨다. 새의 집을 만들 때 스승님은 창문을 서쪽에만 내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 만들고 말았다 그 결과 새들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산돌바람 대신 북쪽 창에서 남쪽 창으로 관통하는 싸늘한 북풍을 맞게 되었다. 이런 이유에다 아교를 사용해 생긴 유독한 냄새와 들어맞지 않는 벽 등 여러 가지 사소한 잘못들 때문에 새들은 새로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비좁고 답답한 곳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런

예를 통해 스승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100%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만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지혜로써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히 가슴속에

선 행사 마지막 날 동수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시간의 마지막 명상에 들어갔다. 명상 시간이 끝나기 30분 전에 스승님이 작별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스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신의 뜻도 어기고 모두를 만나러 오셨다고 하시며 이에 대해선 나중에 신께 빚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은 또한 이번 선 기간 동안 진보하려면 세속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직장과 가족을 뒤로하고 이마에 “죽었음”이라고 써야 한다고 독려하시며 선 기간 동안에는 신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물질세계는 무상하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세속의 배우자는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천국의 배우자(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 기간 동안 내면의 신을 최우선시함으로써 신을 공경해야 한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동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을 받았다! 이어 스승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수행 진보를 돕기 위해선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에 모두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선 행사가 끝났을 때, 신에게만 집중하라는 스승님의 독려 덕분에 선 참가자들의 얼굴은 환한 빛을 발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스승님은 우리의 고군분투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의 지극히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과 수행에 대한 신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었다. 이번 선 행사는 200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 있어 크나큰 축복의 시간이었다!

# 놓아 버려라

“놓아 버려라!”  
 스승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계속 묻기만 합니다.

“놓아 버려라!”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놓아 버려라!”  
 “신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놓아 버려라!”  
 “저도 놓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서... 등등.”

“모든 것을 놓아 버려라!  
 그러면 신을 볼 것이며  
 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  
 신이 곧 모든 것이다!”

우린 언제쯤이나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광 동수/ 포모사 (원문 영어, 중국어)





# 스승님의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린 맥기 사저/ 미국 오키아오 (원문 영어)

선 행사 때마다 항상 기적적인 안배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번 2002년 크리스마스 선오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 나는 행사 전부터 줄곧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주말의 일정을 조심스레 밝혀 놓았고 직장에서도 따로 휴가를 비축해 놓은 상태였지만, 2002년 12월 23일 플로리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마라톤 주자가 마지막 골인 점을 통과한 듯한 느낌이었다.

플로리다 북부를 통과해 센터가 가까워지자 어떤 ‘지표’들이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센터의 성스런 분위기가 근접한 지역에까지 가득 퍼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이웃 농토와 나무를 비추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센터로 돌아가자 친숙한 관음 형제자매들의 얼굴이 보이면서 기쁨이 가슴속으로 밀려들었다. 차를 주차시키고 텐트를 친 후 주요 지역들을 걸어다니던 나는 어둠이 깔리자 센터의 크리스마스 장식 불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경이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수백 개의 작은 별들이 나뭇가지에서 춤추는 것 같았다.

바람 따라 나지막이 속삭이는 잎사귀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니, 불현듯 우리가 이미 천국의 한 곳에 살고 있다는 깨달음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이곳은 스승님과, 센터의 자장을 유지하기 위한 장주들의 헌신으로 그 자장과 분위기가 굉장히 순수하고 상서롭다. 또 여기에는 명상에 정진하고 오계를 지키며 신과 보다 깊이 연결되기 위해 선에 참가한 동수들이 있다. 그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스승님이 계신다! 심지어 스승님은 선의 마지막 날에 신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우리를 보러 오셔서 말씀들을 해주셨다. 많은 업장을 받으실 걸 알면서도 이곳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2002년 크리스마스 선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승님이 안배하신 기적 덕분이다. 우리가 이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또한 스승님의 기적 덕분인 것이다. 진실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길이 없으며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Music Week)』과 로스앤젤레스 시가 칭하이 무상사를 표창하다

미국 LA 엔터테인먼트 팀(원문 영어)

1998년 열린 자선 콘서트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 된 세상’에서 음악과 예술계의 많은 관록 있는 전문가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시적 재능에 극찬을 보냈었다. 당시 무대에 선 가수들은 60여 명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는데 이 관현악단의 단원들은 ‘로스앤젤레스 전문 음악가 협회’의 회원으로서 정기적인 영화 음악 연주회 및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공연한 바 있다.

2002년 칭하이 무상사는 매년 LA 『음악 주간』과 LA 시가 주관하는 제9회 예술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LA 『음악 주간』은 십 년 가까이 다양한 진용의 재능 있는



마기 에번스 여사와 칭하이 무상사의 대리 수장자.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한 크리스털 표창패.

예술가들을 선정해 로스앤젤레스 시와 주에 대한 공헌을 표창하는 한편, 아이들에게는 음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의 ‘2002 음악 주간’ 동안에는 기자 회견, 16명의 수상자를 위한 시상 오찬회, 시의회의 날과 어린이 날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다. 『음악 주간』의 설립자이자 집행 위원장인 마기 에번스는 유명한 가수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활동과 전미 음악계에 대한 지대한 공헌



제임스 K. 한 LA 시장의 이름으로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된 표창장.

으로 대중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2002년 12월 12일, 음악 주간 시상 오찬회가 LA의 격조 높은 월서 그랜드 호텔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칭하이 무상사는



미국 연방 우체국이 기념우표를 확대한 액자와 특별히 음악 주간을 위해 수상자들의 이름을 새긴 도장(Seal).





대리인을 보내 상을 받았다. LA 『음악 주간』 대표인 비키 에번스 여사가 첫 번째 수상자로 칭하이 무상사를 발표하면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에번스 여사는 우선 제임스 한 LA 시장이 서명한 표창장을 스승님께 수여한 데 이어 LA 『음악 주간』의 이름으로 빛나는 크리스털 표창패도 수여했다. 이 시상식은 로스앤젤레스 채널 18-KSCI TV를 통해 긍정적인 보도를 탔다. 매년 이 행사에서는 또한 이 시기에 맞춰 미국 연방 우체국에서 발행한 음악 기념 우표를 확대해 제작한 액자와 음악 주간 수상자들의 이름을 새긴 특별한 도장을 수상자들에게 함께 전달한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에번스 여사는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다’를 소개했다. 관객들이 일제히 비디오에 집중하자 시상식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관음법문에 대한 스승님의

강연 모습과 영성 및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 및 단체의 표창, 천상의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모두들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롭고 무한한 사랑에 흠뻑 젖었으며, 시상식장 전체에 칭하이 무상사의 모습과 사랑이 느껴졌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의 날인 다음날에는 LA 2지구의 웬디 그로웰 의원이 스승님을 표창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가 스승님을 널리 알려진 박애주의자이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이며 십여 년이 넘도록 지칠 줄 모르고 세계를 여행하며 자신의 예술 작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소개하자 시상식장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칭하이 무상사의 대리인이 대신 상을 받았다. 이 모든 행사는 로스앤젤레스 채널 35를 통해 생방송되었으며, 정부의 웹사이트로도 방영되었다. 또한 전 과정이 기록된 테이프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칭하이 무상사를 표창한 이 뜻 깊은 날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의 사료로 보관된다.

12월 14일 LA 음악 주간이 정한 어린이 날 행사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워너 그랜드 극장에서 진행되

었다. 매년 이 행사는 LA 지역 15개 중고등학교의 음악도들을 표창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키워나가는 장이 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특수한 요구 사항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어린이들의 예술 교육을 장려해 온 칭하이 무상사는 이날 학생들에게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 된 세상』 책 100권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사랑으로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미래를 상징하는 이 어린 학생들은 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이 그들을 밝은 미래로 인도하게 되었다.



LA 2지구 웬디 그로웰 의원의 이름으로 칭하이 무상사에게 수여된 표창장.



학생들이 칭하이 무상사로부터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 된 세상』을 선물받고 기뻐한다.

#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의 마기 에번스와의 인터뷰

[K: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엔터테인먼트 팀의 캐서린 허드슨]  
[M: 마기 에번스]

K: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의 마기 에번스 여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마기.

M: 감사합니다!

K: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선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M: ‘음악인 협회’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스승님과 전에 일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스승님의 약력이 실린 『사랑의 바다』 전집을 보내 줬는데, 그것을 보면서 칭하이 스승님이 어떤 명예도 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많은 스태프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승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길 했지요. 그들도 ‘사랑의 길을 걷다’, 그 비디오를 봐야 해요. 좀 전에 시상식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봤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공헌도가 큰 사람들이긴 하지만, 오늘 그 비디

마기 에번스 여사는 유명 가수이자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의 설립자 겸 집행국장이다. LA 『음악 주간』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적 공헌에 대한 표창 시상 오찬이 끝난 후, 에번스 여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칭하이 무상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를 통해 겸손하게 일하는 스승님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큰 교훈을 얻고 돌아갔으리라 확신합니다. 제 생각이 맞았던 거지요. 칭하이 무상사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에 귀기울이고 또한 자신을 내주는 것이 매우 뿌듯한 일임을 잊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시지요. 조금 전 비디오가 상영된 방을 보니 놀랄 만큼 큰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양 나를 잡아당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 모든 것을 알고 있진 않지만, 누가 그 답을 다 갖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가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되었고 제 삶에도 희망을 주시게 된 거지요. 사실 한동안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희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조금도 고맙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좀 전에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선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지만 스승님





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집에선 감정적으로 매우 침체된 상태였는데, 그때 스승님이 나타났고 또 비디오를 보면서 전 큰 축복을 받았습시다. 이젠 정말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은 최고의 감독이 되지지요!

**K: 예, 정말 그래요.**

M: 신이 『음악 주간』을 연출하는 것이지, 저, 마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K: 칭하이 무상사의 음악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M: 그 음악을 들었는데,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음악인 협회’에서 보내줬는데, 전 그 CD를 받고는 침실로 가져갔어요. 잠들기 전엔 늘 긍정적인 생각을 입력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칭하이 스승님과 내면의 대화를 나눴지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저는, 제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승님을 보내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대신 힘을 북돋아 제 인생의 모든 도구를 활용해 진보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스승님의 음악은 제가 진보하도록 돕습니다.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된 세상』 역시 저의 발전을 도와줬지요. 이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와

궁핍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족하든 넉넉하든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지요. 이 모두가 바로 스승님의 음악과 사랑 덕분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이 존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에게 감동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 모두를 아시진 못하겠지만, 전 나중에 제가 이해한 당신의 메시지를 보여 드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을 직접 뵈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스승님의 정신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의 일에 대해 그토록 마음을 쏟고 있는 거지요. “무상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이 가져다 주신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 관계상 인터뷰 내용 중 일부만 실었습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UN TV ‘예술과 영성’ 제19편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온라인 시청 관련 웹사이트 주소: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영어+중국어 자막)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1991. 9. 24. 포모사 시후 센터 (원문 영어)

하느님은 무소부재하므로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부인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에너지 낭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하느님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 스승님의 정교한 산배

빈센트 응우엔 사형/ 미국 버지니아 (원문 어울락어, 영어)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몇 차례의 국제선에 참석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여러 센터를 방문하고 또 많은 동수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딜 가나 동수들은 마치 친가족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는데, 사실 내게 있어 동수들은 모두 관음법문이라는 포근한 한 지붕 아래 있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나는 몇 년 전 스승님을 따라 어울락 난민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난민 캠프에 있던 동수들이 제3국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번역과 서류 작업을 도왔는데, 그때 만난 동수들을 나중에 우연히 만났을 때 일부는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당시 난민 캠프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어서 강제송환이 될 운명에 처한 난민들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런 그들에게 있어 스승님은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러나 어떤 단체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난민 동수들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정문을 통해 캠프에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후문이나 심지어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가기도 했고, 대개는 캠프 경비원의 감시 아래 동수들과 단 몇 분만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서류 작업을 계속하긴 했지만, 희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 어울락 난민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그대로 느낀 나머지 때로는 힘이 쭉 빠져 며칠씩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며 먹을 수도, 맡은 일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여실히 체험했던 것이다. 많은 난민들이 폭력과 강

압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우리도 결국 슬픔과 절망을 안고 캠프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국제선에 참석하고 여러 센터를 방문할 때면 묘한 일이 일어났다. 한때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의 난민 캠프에 살았던 많은 동수들이 내게 다가와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어울락으로 강제송환 된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난날을 함께 얘기하다 보니 그 모든 얘기가 꿈만 같았다. 그들이 어울락에 도착한 후 미국 대사관에서는 ‘갑자기’ 그들의 신청을 재심사하겠다고 결정하곤 다시 인터뷰를 했다. 단, 이미 정식으로 서류 신청을 한 난민들만 심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실 스승님은 그 수년 전부터 이 서류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셨었는데, 당시 우리들은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이 이 동수들을 미국으로 건네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현재 많은 센터에서 어울락과 기타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난민 동수들이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동수들은 모두 이전에 강제송환 되었거나 난민 캠프가 폐쇄되고 나서 현지에 남게 된 사람들이다. 이제야 나는 스승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며, 스승님의 무한한 힘이 깃들면 그 어떤 일이든 그것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천국의 관문

## - 남미 페루 홍법 종합 보도

글: 관음사자

### 아레키파 강연회

많은 사람들이 페루를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으나, 페루는 사실 영성이 풍요롭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뛰어나며 거대한 역사적 산물을 자랑하는 나라다. 또한 세계 6대 고대 문명의 하나인 잉카제국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오늘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페루 입문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음사자의 방문을 맞아 나라 곳곳에서 수차례의 비디오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2002년 5월에는 관음사자가 1달여 간 머무는 동안 7번의 입문식과 4번의 비디오 강연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관음사자가 10월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번의 입문식과 7번의 홍법 강연회가 열렸다. 이 모든 행사가 헌신적인 동수들의 봉사로 이뤄질 수 있었는데,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신실함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또한 매번 강연회에는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10월에 열린 첫 번째 강연회는 페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아레키파에서 열렸다. 페루 남부에 위치한 이 도시는 백색 화산암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은 탓에 '백색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곳엔 당시 동수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두들 스승님에 대한 신심이 대단했다. 관음사자가 5월에 방문해 입문식을 거행했을 때, 이곳 연락인은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방문해 비디오 강연회를 열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었다.

이렇게 해서 아레키파 강연회가 아레키파 독일 학회 강당에서 열리게 되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리가 부족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가까지 늘어서야 했다. 스승님이 영어로 말씀하신 테이프를 상영했는데, 스크린이 낮은 탓에 뒤에 앉은 사람들은 화면 밑의 스페인어 자막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동수가 뒤에 앉은 사람들과 행사장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자막을 읽어 주어야 했다. 행



아레키파 강연회가 끝난 후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남은 참석자들. 자리가 꽉 차서 무대까지 올라와야 했다.



사가 끝날 무렵엔 강연장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비롯해 대다수 사람들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체험을 했다.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인원이 남아 계속 수행에 관

한 질문을 하며 떠나기를 아쉬워했다.

## 쿠스코 강연회

쿠스코는 고대 잉카제국의 수도로 문화 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성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이곳의 역사 유적지들을 둘러보면 발전된 페루의 문명을 감지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도시에도 이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의 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 동수들과 연락인의 열렬한 초청을 받고 관음사자가 이곳을 방문해 비디오 강연회를 돕게 되었다. 4일 동안 열린 3차례의 강연회는 입추의 여지도 없이 만원을 이뤘다. 첫 번째 강연회는 연락인의 집에서, 두 번째 강연회는 산타모니카 도시화 구역(Santa Monica Urbanization)으로 알려진 곳에서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동수들은 이를 연

달아 샬칸테이 라디오 방송국(Radio Salcantay)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틀째 인터뷰가 있던 날에는 한 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스승님의 강연이 20여 분 이상 방송되었는데, 방송국의 한 직원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듣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자연요법 의사로서 청취자들에게 자주 채식의 권장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주말에 열리는 청취자와의 만남 자리에 나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강연회가 열리게 되었다. 매번 강연회 때마다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였으며, 대부분이 즉석에서 채식하기로 결심하고 또 남아서 방법법을 배우곤 했다.



쿠스코 산타모니카 도시화 구역에서의 비디오 강연회.

## 트루히요 강연회

페루 북부 지역에 위치한 트루히요에서 강연회를 열기 전, 동수들은 이 지역의 신문 매체들을 인터뷰에 초청했다. 이에 강연회 당일 아침 '라디오 리버타드'의 엘머 자무디오 산체스 씨가 센터를 찾아와 동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가진

모임에서 자무디오 씨는 관음사자와 동수들로부터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겪은 삶의 변화에 대한 생생하고 자연스런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터뷰가 끝난 뒤 동수들은 산체스 씨에게 채식 간식을 함께 들고자 하면서 스승님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틀어 주었다. 이 음악에 큰 흥미를 보인 그는 나중에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방송하기 위해

스승님의 노래 몇 곡을 녹음해 갔다.

트루히요 강연회 당일, 센터는 참석자들로 꽉 찼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뒤에 남아 방법법을 배웠다. 그 중 일부 사람들은 채식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으나, 스승님의 강연을 듣고 나더니 채식과 수행도 시작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 아야쿠초 강연회

아야쿠초는 페루 중부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수공예품과 농특산물이 유명하다. 이곳 주민들은 수년 전 발생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은 폭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페루의 동수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게 진리와 스승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한 관음법문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길 소망해 왔다.

입문자들의 신실하고 열렬한 소망이 천지를 감동시켜 하늘은 비탄에 잠긴 이 도시를 성스러운 사랑의 비로 씻어 주기 시작했다. 억수같이 쏟아진 비는 거리를 작은 시내로 바꾸었고, 심지어 정전이 되기도 했다. 정전이 되는 동안, 한 사저는 어둠 속에서 명상하다가 내면의 눈부신 빛을 보고는 전기가 다시 들어온 줄 알고 3차례나 눈을 떴다고 한다. 동수들이 후안타

(Huanta)라는 곳에서 강연회 전 단지를 배부하는 동안 만난 한 신사는 3일 전에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으로부터 이 행사에 참가하라는 초청을 받았다

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동수들은 스승님이 이미 이를 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며 웃으며 말했다..

강연회가 있기 전,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 3사(라디오 멜로디, 라디오 와리와 각각 한 차례씩, 라디오 아틀란티스와 두 차례)와 TV 방송국 두 곳(채널 23, 채널 7)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각 매체들은 코앞에 닥친 지역 선거로 바쁜 와중에도 우리와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TV 방송국에서는 스승님을 소개하는 비디오테이프의 일부를 방영하기도 했다.



아야쿠초 강연회 모습.

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 했으며, 나중엔 설 자리도 없어서 임시로 다른 공간에 TV를 설치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신실함이 대단한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했다.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이 끝나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이번에 방편법을 배운 한 지역 공무원 수장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채식하고 명상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다른 몇몇 방편법 수행자들은 자신의 집을 향후의 단체명상 장소로 제공하고 싶어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리마의 연락인과 동수들은 방편법 수행자들의 단체명상을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아야쿠초를 다시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동수들은 라디오 아틀란티스와 인터뷰와 특별 방송을 활용해 이를 동안 연속해서 소규모의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아야쿠초에는 스승님의 축복으로 단체명상 센터가 생기게 되었다.

스퀘어 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린 아야쿠초 강연회에는 4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호텔 직원이 계속 의자를 보충했는데



TV 채널 7번과의 인터뷰.

## 리마 유니버설 약국 강연회

아야쿠초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리마 동수들은 같은 주에 유니버설 약국에서 강연회를 한 번 더 열었다. 이 약국은 리마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 가운데 하나로서 매주 주민들의 교육과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 약국 책임자의 주선으로 우

리는 클래식 음악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라디오 필라모니아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한 오페라 프로그램 방송 중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히 내면의 음악과 세간 음악과의 관계, 내면의 음악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얘기했다.

강연회 당일 강연장은 다시 한번 만원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웠다. 건강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

자 한 사저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원래 있었던 말기 암이 별다른 치료 없이도 치유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참석자들이 ‘내면의 빛’을 경험하면서 이 무상한 육신과는 별개로 영원한 진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리마 유니버설 약국에서의 강연회.



리마 라디오 필라모니아와의 인터뷰.

## 뉴욕 시, 법령을 강화시키다

새해 하루 전 뉴욕에서 열린 2002년 중 가장 성대한 파티에서 뉴욕 시장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법을 승인했다. 뉴욕 주지사 또한 운전 법안을 강화했다. 2003년 3월 30일부터 이 금연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에선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자들이 이 법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부 회사는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지 파타키 주지사도 음주 운전 벌칙 조항을 더욱 강화하며 이로 인해 거리가 보다 안전해지길 희망했다. 이 두 가지 법령 제정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nyc.gov/html/om/html/2002b/pr219-02.html>





# 왜 불보살은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가

청하이 무상사/ 1991. 8. 5-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 100원의 공양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도 한번 한 적이 없었는데, 스님이 탁발하러 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매우 신실해서 불경을 외고 수행하는 걸 아주 좋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갠지스 강에 참배하러 가서 불보살의 가피를 구하는 재를 올립시다. 어머님이 천도되시도록요.” 남편이 말했지요. “좋아!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먼 곳은 안 되겠어. 그러니 가까운 곳에서 하도록 하지.”

참배를 하는 도중 그들은 어떤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에 도착했을 때 스님들이 있으면 일반 관습대로 공양해야 할 게 두려워서 그들은 스님들이 잠든 한밤중에 맞춰 도착했지요. 절에 도착하니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고 불상과 관음보살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구두쇠 기질을 안 관음보살은 스님으로 모습을 바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상에 절을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난 스님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스님으로 변장한 관음보살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니

공덕이 무량합니다. 당신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 드릴까요?” “아니오, 됐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해 드리지요. 이 자리에서 공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쥐도 되니, 얼마 내실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올리는 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지금 약속해도 상관없겠지. 나중에 그냥 가 버리면 우릴 찾지 못할 테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100원을 공양하겠습니다.” “좋아요! 100원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하곤 수많은 불경을 외었습니다. 천도재가 끝나자 남자는 부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천도재도 끝나고 참배도 했고 절도 했고 저 스님이 불경도 읽어 줬으니, 내일은 집에 가도 되겠어.”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그 스님이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스님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공양한다고 한 100원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남자는 겁에 질려 말했어요. “이럴 수가, 난 100원도 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밖에 나가서 내가 지금 병이 위



중해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 부인은 남편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잘 알고 있는 터라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이 지금 너무 아파서 스님을 뵈 수 없으니,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가 아프다고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제 본분을 다해야지요! (대중 웃음) 그가 빨리 회복되도록 염불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완강한 말에 부인은 남편에게 다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럼 내가 죽었다고 해! (대중 웃음) 빨리 가시라고 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스님에게 말했지만, 이 스님은 자신의 직분에 아주 열성적이라서 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필히 안에 들어가 그의 천도를 위해 불경을 외워야겠군요.”

지금 이 남자는 ‘죽은’ 상태라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되었지요. (대중 웃음)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스님이 안에 들어가 경을 읽고 염불하며 장례를 치르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는 관에 안치돼 화장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장하기 일보 직전 남자는 관에서 뛰쳐나와 외쳤습니다. “이봐요! 화장하지 말아요! 난 아직 살았다고요!”

그때 스님은 원래의 관음보살의 모습으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그대가 참배하러 다니며 그토록 고생스럽게 성심을 다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다. 이제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내 기꺼이 들어 주겠노라.”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아니까? “관음보살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100원 공양하기로 한 일을 제발 없던 일로 해주세요!” (대중 웃음) 그러자 관음보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떠나 버렸습니다. 중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보살이 내려와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 목불을 섬긴 수행자

어떤 스승 밑에서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승은 그에게 지장보살상을 주며 왕생주를 가르쳐 주고는 매일 수천 번씩 그 불상에 절을 하고 수만 번씩 왕생주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스승의 지시대로 수행하면 분명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제자는 열심히 수행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감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 불평을 늘

어놓았지요. “스승님, 좀 도와주세요! 다른 주문을 가르쳐주세요. 지장보살보다 더 힘있고 더 자비로운 불상을 주세요. 지장보살에겐 정말 두손들었어요. 일년 동안이나 절을 하고 섬기고 목이 마르도록 주문을 외웠지만, 그분은 제게 아무런 축복이나 감응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불상을 섬기

기 싫습니다. 더 좋은 불상을 주시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아미타불의 왕생주를 가르쳐 줄 테니 아미타불을 모셔라. 아미타불은 대단히 자비





롭고 큰 발원을 했으며 중생과도 인연이 많으니, 그분을 섬기면 반드시 진보할 것이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믿고 작은 아미타불상을 가져와 주문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줄곧 정말 신실하게 아미타불의 명호와 주문을 외웠지요. 하지만 역시 일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스승에게 불평했습니다. “스승님, 아미타불도 영험이나 감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제발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저를 입문시켜 주시고 더 훌륭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정말 신실하다는 것을 안 스승은 이번엔 꼭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관음보살상을 줄 테니 돌아가서 잘 모셔라. 관음보살은 매우 자비로워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영험을 얻었다. 너도 이분을 섬기면 분명 감응이 있을 것이다.” 스승의 말이라면 성심으로 믿었던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선 관음보살에게 성심성의로 절하고 밤낮으로 그 명호를 외우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최고급 백단향을 사르곤 관음보살상 앞에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지장보살과 아미타불은 책상으로 옮겨 놓고 먼지가 앉아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보살이 영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도 하지 않았지요. 그들을 책상 위에 모셔 놓고 “쉬세

요.”라고 하면서 관음보살만 섬겼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그는 백단향 향기가 아미타 불상의 코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쿠, 저러면 안 되지! 난 관음보살님만 섬긴단 말이야. 당신은 아무런 영험도 없으니 나의 향을 누릴 자격이 없잖아.’ (대중 웃음) 그는 아미타 불상을 내려서 향을 맡지 못하도록 콧구멍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미타 불상이 사라지더니 진짜 아미타불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미타불이 말했지요. “너의 구도심과 신실함에 탄복했노라. 이제 네가 바라는 건 뭐든지 들어 주겠다.” 이에 이 제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을 뵈다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제가 당신의 코를 막았을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미타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이전까진 나를 불상, 목불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나를 섬기고 싶을 땐 절을 하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땐 한쪽에 치워 두었지. 나를 좋아할 때는 절을 하고 싫어할 때는 향도 하나 피워 주지 않았다. 또 바쁠 땐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견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네가 생각이 바뀌어 나를 진짜 부처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코를 막아 버리려고 했지. 그래서 내 코가 진짜로 막힐까 봐 이렇게 서둘러 나타나야 했던 것이다.” (스승님 웃음)

## 수행의 개념은 정확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수행이 신실하고 개념이 정확하다면 목불조차 진짜 부처로 변할 것입니다. 반면 수행이 좋지 않고 개념이 올바르지 않다면 살아 있는 부처라도 목불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

약 불보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면 진짜 불보살이 내려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남자는 진짜 부처가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탈이나 성불, 대지혜를 바라기는커



녕 겨우 부처의 용서와 100원의 공양을 감면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상상이나 겁니까?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생들은 큰일은 기도하지 않고 세속의 습관에 빠져 매일 세속의 습관과 관념에 묶여 지냅니다. 입만 뗐다 하면 세속적인 일이고, 떠올리는 생각도 다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도 다 세속적인 것이니, 불보살이 내려온들 아무 소용이 없지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불에게 무례하게 대했지만, 그의 개념은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즉 보다 더 깨달은 편이지요. 그는 더 이상 불상을 나무토막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다. 그 순간 그에겐 모든 것이 부처로 보였기 때문에 목불도 진짜 부처처럼 여겼습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불에 숨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부처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목불을 섬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이 바르고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대하든 부처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면 진짜 부처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

리의 개념이 옳을 땐 목불조차 진짜 부처가 될 것이고, 개념이 바르지 않으면 살아 있는 부처와 함께 있어도 범부와 같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불이 세상에 계실 때 부처님을 위해 거대한 아쉬람을 지었는데, 그때 사리불이 나무 밑에서 아주 커다란 개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개미를 가리키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이 개미는 이곳에서 수많은 생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부처의 법문을 들었으나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줄곧 자신이 개미라는 수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불보살은 우리를 범부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원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치 않고 유아적인 수준에 그대로 머물길 좋아한다면 불보살이라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는 처방전을 지어 줄 순 있지만 우리 자신이 약 먹기를 싫어하고 병에 매달린다면 의사라도 강요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 감로법어



청하이 무상사/ 993. 5. 14. 대한민국 단체명상 (원문 영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합니다.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나는 부처이지만 이 육체는 여전히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직 내가 항상 노력하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육체의 피곤함이나 기분에 결코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한다면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구경꾼은 명청이요, 배우는 미치광이다!”

## 꿈에서 깨어나니 다음 생은 없으리!

평평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입문 후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우리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일체가 결코 실상이 아니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 있어 모든 청각적·시각적 예술들은 ‘드라마 속의 드라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두 달 전쯤, 남편이 한국 드라마 ‘명성황후’에 푹 빠지게 되었다. 남편은 매일 그 연속극이 시작될 때면 침실로 들어가 혼자서 TV를 보았는데, 그 시간이 내겐 마침 명상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명상을 하면서도 나와 그 드라마를 같이 보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스승님이 예전에 해주신 제 환공을 보필한 관중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관중은 국가 대사를 위해 종종 황제와 함께 세속적인 향락을 즐기곤 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라 일도 훌륭하게 해냈다. 스승님의 그 말씀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 입문한 후 나는 세속적인 일에 무심해져서 그런 즐거움을 누릴 때에도 조금도 흥분되지 않았었다. 아직도 세속에 깊이 몰려 있는 가족들은 나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에는 다소 거리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고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한 나는 남편과 함께 ‘명성황후’를 보고, 때로는 그 드라마에 푹 빠진 척하며 남편과 그 줄거리를 놓고 토론하기도 했다.

남편은 개인적인 욕구가 만족된 탓인지 드라마 방송

시간에 맞춰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내게 좀더 일찍부터 명상하라고 채근했다. 그 결과 나는 전보다 더 여유롭게 명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나는 그가 관심을 보이는 것엔 덩달아 관심을 보이고, 그가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 나도 거기에 빠진척했다. 수시로 나 자신이 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드라마가 절정에 이를 무렵 황후를 연기하던 여배우가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 바람에 갑자기 교체되었는데도 드라마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이 황후 역을 연기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드라마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연기하고 있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건, 어떤 역할을 맡고 있건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건 연극에 지나지 않으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정말이지 나는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우리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각자의 분장을 벗어 버리고 우주라는 연극 무대에 이별을 고하기 전에 한번 ‘미치광이’ 처럼 자기 역할을 연기하거나 ‘명청이’ 처럼 연극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역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드라마가 전부인양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어쨌든 다시 오길 스스로 자청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어 이제 다음 생이란 없는 것이다.



## 부전자전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4

어떤 집의 아들이 학급에서 꼴찌를 한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성적을 보곤 매우 화가 나서 말했지요. “너는 항상 성적이 엉망이야! 옆집 애를 봐라. 개는 늘 일등만 하는데, 너는 꼴찌만 하나! 대체 어찌 된 일이나? 너희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가르치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오, 가르쳐 주세요. 오늘 아침엔 ‘부전자전’을 가르쳐 주셨는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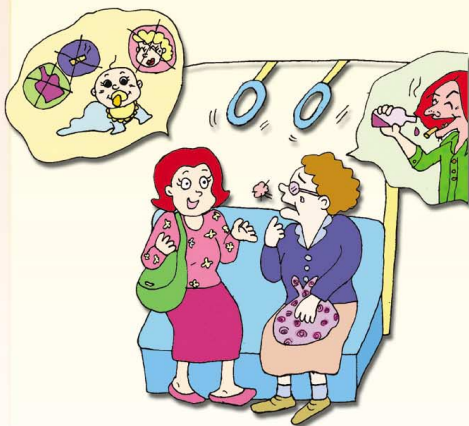


## 이렇게 착할 수가!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4

두 여자가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장거리 여행이라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요. 좀더 나이가 많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항상 골칫거리만 만들지요. 우리 아들은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담배 피우고 술을 마셔요. 여자 친구도 수시로 바꾸고요. 정말 엉망이에요. 개가 좀 나아졌으면 싶은데, 그런 복은 없나 봐요. 매일 기도하는 수밖에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에게 물었어요. “댁은 어때요? 아이가 있나요? 댁의 아이는 어떨지요?” 그러자 얘기를 듣고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애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아직 여자 친구도 없어요. 나쁜 말은 한마디 못 하는 걸요.” 나이가 많은 여자는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그것 참 잘됐군요! 당신은 정말 복이 많네요. 아들이 몇 살인데요?” “이제 5개월 됐어요.”



## 승급실 괴담

청하이 무상사/ 1999. 2. 14.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4

어떤 남자가 아주 위험한 곳에 갔습니다. 거기엔 못과 돌맹이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곤 맨발로 이리저리 다녔고, 그 결과 곧 발목과 발을 다쳐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 그곳 의사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신발도 안 신고 갔습니까?” “물론 신고 있었지만 벗었지요.” 이 남자의 말에 의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미쳤어요? 신발을 왜 벗었어요?” 그러자 그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미쳤소? 내 발을 보라고요! 신발을 신고 있었으면 내 신발이 어찌 되었겠소?”





# 꿈에서 업장을 없애 주신 스승님

바크 사저/ 필리핀 마닐라  
(원문 어울락어)

스승님을 따라 수행을 한 지난 수년 동안 내 삶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나의 삶에서 슬픔과 걱정은 날마다 사라져 갔고 대신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찼으며, 일상생활에서 수행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자리 잡고 그 외 나머지 것들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갔다.

한때 나는 심한 병에 걸려 오른팔이 마비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종종 의사를 찾아가 온갖 치료를 받아 봤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는 대신 24시간 내내 스승님께 기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관음은 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스승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왼팔도 오른팔처럼 심하게 아프고 양팔이 온통 종기와 딱지로 뒤덮이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딱지를 벗겨 내면 고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들 하나하나가 닭 머리, 소 머리, 돼지 머리, 개구리 머리, 개 머리와 같은 동물들의 머리로 변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무서웠는데, 다시 한 번 보니 느낌이 달라져 작고 귀여운 동물들로 보였다.

그 후 꿈에서 깨어나 팔을 보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팔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병이 다 나은 것 같았다! 나중에 채식과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돌이켜 보니 전에 식사 때마다 이런 동물들의 고기를 먹곤 했었는데, 그들이 빛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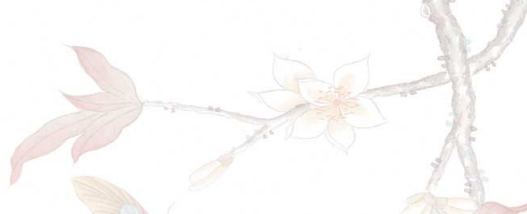
다행히도 스승님의 보호로 스승님이 꿈에서 이 업장을 없애 주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전에 나는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모든 중생에게 영혼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었던 것이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궁극의 법문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는 아무리 미미한 생물이라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 생명의 은인, 흰옷 입은 여인

위니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LA (원문 영어)

내게 있어 1983년은 불행한 한 해였다. 당시 나는 겨우 스물세 살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가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유학하던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대학 공부를 마치기 위해 낯선 나라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했다. 우리 가족의 평화도 재정 문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고국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겪을 고생들을 생각하며 수많은 밤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잠이 들면서 꿈을 꾸게 되었다. 수백 년 전 중국을 배경으로 한 꿈속에서 나는 한 절을 찾아가 부처님과 관음보살, 노자, 공자와 같은 성인들의 상(像)에 앞드려 절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경내는 매우 상서롭고 조용했다. 그런데 절을 막 떠날 무렵 바깥에서 폭동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절의 스님들은 문을 모두 잠가 버렸고, 그 때문에 나는 바깥으로 나갈 기회를 잃고 그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때 나를 발견한 스님들은 안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스님들의 말을 무시하고 화난 폭도들이 절로 접근해 오는 것을 나무 문틈 사이로 보았다. 칼과 검, 도끼, 횃불을 가지고 사방에서 몰려온 폭도들은 나무 문을 쿵쿵 두들기더니 잠시 후엔 도끼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안뜰을 지나 급히 절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바깥에 있는 화난 폭도들에 대해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모두 이미 숨고 없는 상태였다. 나는 폭도들이 왜 화가 났고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했지만 답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숨으라고 한 스님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자신을 원망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횃불들이 날아오더니 지붕에 불이 붙었다. 이럴 수가! 이제 절을 빠져나가려면 정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전 꿈쩍없이 절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울기 시작했다. 이때 절은 연기로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

절의 복도를 걸어가면서 연기가 없는 곳을 찾는 한편 나는 신께 도움을 청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방이 보였다. 방은 얇고 새하얀 천으로 드리워져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관음보살을 모신 곳이었다. 관음보살은 크나큰 자비심과 사랑이 있으며 많은 이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관음보살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눈부신 빛에 이끌린 탃도 있었다. 이전에 찾아왔던 기억속엔 이 방에서 이처럼 눈부신 빛이 방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도 봤지만, 두렵기는커녕 이 방이 불보살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순백의 휘장을 열어 젖혔지만 연기 때문에 관음보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방은 매우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흡사 관음보살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관음보살상이 있던 자리에 하얀 가운과 얇고 하얀 베일을 쓴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같이 빛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웃으며 내게 손을 내밀자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그리고 나선 꿈에서 깨어났다.

그 후 때때로 이 꿈을 떠올릴 때면 매우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이 꿈은 기존의 꿈과는 달랐고 매우 특별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내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씩 좋아져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생활도 나아져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이 더 안락해졌어도 내면은 뭔가 빈 듯한 느낌이었고, 그로 인해 나는 수년 동안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 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했다.

그러다 결국 1996년 3월 스승님을 직접 뵙고 바로 방편법을 신청했으며 그해 7월에 입문을 하게 되었다. 나는 입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또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매우 감사드린다. 관음법문을 통해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치유되었고, 스승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지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1995년 10월 25일 청하이 데이 3주년 경축 행사’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했는데, 이 테이프는 시후에서 열린 그 행사의 공연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비디오에 나타난 스승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이지 기절할 뻔했다. 하얀색의 긴 가운과 새하얀 베일을 쓰신 스승님이 제자들이 연출한, 드라이 아

이스 연기가 피어오르는 단상에 서 계셨는데, 그 순간 나는 1983년에 꾸었던 그 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관음보살전에 있었던 여인의 영상이 떠오르자 나는 그녀가 누구였는지 깨달았다. 바로 스승님이었던 것이다! 스승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비디오에서 스승님을 보며 뭐라 말할 수 없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스승님은 전생에서뿐 아니라 이생에서도 나를 구해 주셨다. 1983년부터 스승님은 이미 줄곧 나를 보호하고 돌봐 주셨는데도 나는 그 사실을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시공을 뛰어넘는 스승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 축복받은 아프리카

정리: 관음사자 (원문 영어)

### 스승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일이 순조로워지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열 아홉살의 토고 출신 사저가 최근 홀홀 단신으로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 사저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이름으로 그 지역 센터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신청서를 냈으나 많은 관료주의적 문제들로 인해 날마다 수속을 달리 밟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인가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을 때는 극도로 좌절해 다시 한 번 수속을 밟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울면서 스승님께 기도하며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러 오길 바랐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그녀는 스승님으로부터 “용기를 내고 스스로 계속 노력하세요. 담당 장관을 찾아보세요.”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녀는 다음날 관계 당국을 다시 찾아갔으나 어디에서 장관을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내리려고 할 때 몇몇 직원들이 새로운 장관을 맞이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따라갔고, 장관을 맞이할 장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2인 1조로 장관을 기다렸다.

사저도 한 남자와 짝을 이루게 되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이 남자가 있으면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는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장관실로 호출을 당했을 때, 그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깜짝 놀란 그는 뒤에 서서 전화를 받았고, 이로 인해 사저는 혼자서 장관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2주 후 지역 센터는 인가를 받았다.

그 사저는 매우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기적이지아 스승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 다른 유명한 수행 단체도 신청한 지 7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성공하지 못했대요!”

### 선량한 생각으로 위험을 없애다

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젊은 사저는 라디오 방송에 센터 소식을 내보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중 한 고위직 군관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 돌아와 유럽으로 가려고 수차례나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센터를 방문하게 된 그는 그 후 매일 센터를 찾아와 스승님의 출판물을 읽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프리카 체류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스승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3개월 후 도착한 관음사자가 그에게 방편법을 가르쳤는데, 그 이후로 그의 운명은 스승님의 손에 의해 바뀌어 갔고, 그는 꿈을 통해 많은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그 중 한 이야기다. “한번은 새벽 3시에 일어나 30분간 명상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꿈에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부하를 한 명 보았습니다. 그가 총을 빼서 쏘려 하기에 나는 즉시 그의 총을 뺏아 그를 겨누었지요. 그 순간

‘나는 지금 채식을 하니 사람을 죽일 순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총을 버리자 그 부하는 다시 총을 집어 나를 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는데,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바로 그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그 부하가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아마 꿈을 통해 우리 둘 사이의 문제가 사라졌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나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는 깜짝 놀라더니 자기 차로 뛰어 들어가 총을 꺼내 와선 날 겨누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먼저 너를 봤다. 만약 너를 해칠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러곤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그도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방편법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형은 명상과 꿈을 통해 이런 체험들을 많이 겪었는데, 스승님의 축복과 꿈속에서 자기가 선택한 생각을 했던 이유로 자신의 업장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는 입문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났어도

외일드 그래스 (원문 중국어)

스승님이 포모사에서 가르침을 펴시던 초창기엔 고정된 명상 센터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연을 청하면, 스승님은 늘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출가승과 재가 제자들을 데리고 강연장에 오셨다가 강연이 끝나면 숙소로 다시 돌아가곤 하셨다.

1987년 5월 타이난의 한 절에서 스승님께 사흘 동안 설법해 주시길 청했다. 이 사흘 간의 강연은 타이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님이 핵

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강연 2, 3일 만에 엄청난 인원이 입문을 신청했다.

타이난 강연이 끝난 후 일행들은 스승님을 모시고 포모사 북부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 신잉을 지날 무렵 갑자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차를 정비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스승님은 사람들을 데리고 길옆에서 고금을 연주하며 불찬을 부르셨다. 그러는 동안 몇몇 정비공들이 다가와 불찬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스승님은 불찬 악보를 나눠 주시며 한 소절씩 불러 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몇 번인가요?” 하고 스승님께 여쭙자 이에 그의 동료들은 큰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우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자 그 사람이 다시 보충해서 물었다. “스승님, 이번 주 ‘올 해피 복권’은 몇 번이 될까요?”

\*\* ‘올 해피 복권’은 십수 년 전에 포모사에서 유행했던 불법 도박의 하나다.



# 성인병(聖人病)에서 벗어나라

청하이 무상사/ 1994. 3. 9.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09



여러분은 다 자랐고 아주 똑똑합니다. 지능도 아주 높지요. (대중 웃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아는데, 왜 내가 모든 걸 말해 줘야 합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보다 활발해지십시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하세요! 재미있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하십시오. 영화배우를 알고 싶으면 쫓아다니고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편지를 쓰세요!

만약 하고 싶은 게 이 세계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변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좀 어렵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지향이나 흥미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성심성의를 다 기울여 한마음으로 그 성공을 바라기만 한다면 이를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비참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는 나에겐 너무 과분한 미남이야.” 누가 압니까? 어찌면 당신이 그에게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운지요! 결코 속단할 수 없는 일이지요. 남자들을 쫓아다니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 한다는 거지요. 자신을 믿지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으니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일하거나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마치 신처럼, 신에 버금가는 존재처럼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압니다. 나도 할 수 있으니 까요. 방송국을 하나 세우거나 그냥 하나 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고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방송국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지, 사실 그런 것들은 별게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사이공 라디오 방송국 옆에 살았었습니다. 아주 큰 방송국이었는데, 나는 매일 그 옆에 살면서도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옆을 지나 왔다갔다하면서 신전처럼 커다란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는 가수들과 유명인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앉아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노래하거나 시를 낭송하는 장면을 꿈꾸곤 했지요. 꿈만 꾸었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곤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가끔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시 쓰기 대회나 퀴즈를 맞추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응모해 봤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요. 상을 받



우리라곤 생각도 못 했고, 그런 일은 내게 있어 너무나 먼 일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응모하자 바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라디오 방송국과는 인연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마 한두 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하면 제법 긴 시간이었으니, 방송국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나도 노래하고 시를 낭송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난 시 낭송을 아주 잘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지금의 나처럼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중 박수) 물론 내가 가수가 되지 못한 게 별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결국 되긴 났잖아요. 문제는, 거기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방송국 주변만 맴돌 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었고 얼마간 재미있기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신이 원치 않았으나 봐요. 그러니 상관없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 될 거라곤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 즐겁게 놀지 못할 것도 없지요! (대중 웃음) 아마도 신은 내가 스승이 되길 원해서 내가 세계 제일의 가수가 되거나 당대 최고의 예술가가 되는 것을 막았나 봅니다. (대중 박수)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꿈을 이루는 데 있어 막을 게 없으니 ‘마지막 생’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사실 나 자신도 재미있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머물러 좋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게 묻습니다. “왜 화장을 합니까? 왜 화려한 옷을 입지요?” 나도 ‘무상사’, ‘칭하이 스승’이 되기 전엔 이렇게 입고 살았습니다. (스승님께서 평상복을 가리킴.) 그리고 나선 오랫동안 이렇게 입지 않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나로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해 못 할 것도 없지요. 마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린애처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나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내가 얘기해 준 왕과 같지요. 그는 왕궁을 벗어나 평민들과 함께 지내고 더러운 식당이나 지저분한 길거리를 다니곤 했습니다. 수행원 몇 명만 대동하고 다녔지요. 자유롭게 싶었으니까요. 영광된 지위와 온갖 보호에서 벗어나고 왕의 신분으로 길을 걷는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싶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만 싶었던 거지요. 것처럼 나도 성인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해탈했지요! (대중 박수) 나는 아팠던 겁니다. ‘명상 병(病)’, 혹은 ‘스승 병’을 앓고 있었기에 남들이 내가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입니다. 병이 다 가 버린 것 같습니다.

때로 얼마간 수행하고 나면 병이 생깁니다. 이른바 ‘성인병(聖人病)’인 셈이지요. 하지만 그건 자기 스스로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주위나 코, 발목에 티를 내거나 가슴속에 숨겨 둔 ‘성인’의 흔적을 모두 하나씩 치유해야 합니다. 천천히 할지, 아니면 급하게 서두를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마침내 얘기가 하나 생각났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한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모두들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은 스승이 되었는지는 묻지 않고 왜 이런 옷을 입는지 묻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저, 꼭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결국 숨겨 둔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런 옷을 입으시지요?” 이런 식입니다.

티베트에는 하늘을 나는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중국 사람들이 경공술을 수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공을 연마하면 날아오를 수도 있고 지붕 위로 뛰어오를 수도 있으며 아주 높이, 멀리도 갈 수 있지요.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보는 쿵푸는 진짜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 환경이 열악하고 차가 없으니까요. 거기엔 일년 내내 눈 덮인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아주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음식을 많이 못 가져가지요. 아주 작은 봇짐 정도만 챙겨 갈 뿐입니다. 가는 도중에는 식당도 거의 없지요. 때로는 말도 없어서 야크(몸집이 크고 흑갈색의 긴 털을 가진 히말라야의 소)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하지요. 또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이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비행술’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두 번 다시 지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늘 공중에 둥둥 떠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알렉산드라 데이비드 니일 여사의 책을 읽어 보십시오. 거기 나온 건 모두 사실이에요. 내가 그 책을 거론하는 건 내 말이 허황된 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이들이 책에 써 놓은 걸 알면 증거가 되니까요.

늘 하늘을 날아다니기만 하는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땐 내려와야 합니다. 최소한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은 해야 하잖아요! (대중 웃음) 너무 오래 날아다녀도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때론 내려와야 하는데, 이때는 무거운 쇠사슬을 몸에 많이 감아야 균형을 잡고 이륙과 착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티베트에 가서 하늘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겐 그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어 스스로 고문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들에겐 필요한 일이지요. 아주 높이 올라갔는데 몸이 너무 가벼우면 몸을 무겁게 해줘야만 땅에 내려와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처음 수행을 시작해서 얼마간 수행한 뒤에는 성자나 부처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저런 건 믿지 않는다, 저것은 안 본다, 저 사람과는 말하지 않는다, 저런 옷들은 입지 않는다.” 이만하면

이미 중증인 것입니다. (대중 웃음)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너무 성인 같아지면 여러분 스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다시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야만 하지요. 그래야 세상에 융합되고 자신의 지식과 수행의 성과 및 지혜로써 무언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열반 속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만일 내가 늘 열반 속에만 있었다면 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열반에만 들어 있었겠지요. 이건 존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여러분의 고통이나 사랑, 미움, 실패, 미덕 등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성스럽고 너무나도 순수한 탓에 말입니다. ‘수운~수~’ 해서요. (대중 웃음과 박수)

그러므로 이런 옷들이 내게 있어선 쇠사슬인 것입니다. 무슨 색깔인지는 상관없지요. 노란 티끌, 파란 티끌, 하얀 티끌 등 그냥 티끌일 뿐입니다. 그러니 뭐 하러 신경 씩니까?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성인입니다. 성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도 퇴원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다시 정상이 되면 우리와도 말이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스러워지는 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균형이 깨어질 수 있으니까요. 늘 하늘을 날아다니는 티베트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쇠사슬을 감지 않고 날아다니는 이들을 보거든 그 아래로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대중 웃음) 안 그러면 난감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좁고 높은 곳에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불편합니다. 나중에 내가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 번뇌는 보리다

부 사저/ 미국 인디애나 (원문 영어)

10년 전 남편과 내가 아이들에게 완전채식을 시키기 시작하자 친정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셨다. 당시 내 두 아들은 다섯살과 여덟살이었는데, 부모님은 채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칭하이 스승님을 따르고 수행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더더욱 불안해하셨다. 지역 신문에서 스승님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보도하는 바람에 당신들의 생각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다행히도 우리 가족은 다른 주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의 비판과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반응을 멀리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와 외손자들을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일년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산호세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하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부모님은 매끼마다 고기를 드셨고 사방이 나쁜 자장으로 뒤덮여 있어서 나는 원기를 다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곳 단체명상에 참석할 수 있는 주말만 학수고 대하곤 했다.

나의 아버지는 한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구셨는데, 특히 어머니에게는 유난스러웠다. 아버지는 거의 날마다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하며 불평하고 화를 내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참을성이 많은 분이어서 45년 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의 못된 성미에도 줄곧 여유롭고 평온하게 지내셨다. 나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해서 -물론 아버지도 사랑했지만- 아버지에게

종종 대들곤 했다. 입문 전이나 후에도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면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 때문에 다투곤 했었다.

수행을 하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나는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이 내 수행 진보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관음법문 수행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이 많고 힘이 넘치고 진선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본다면, 그들도 우리가 따르는 이 길이 진정한 길이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이 설교할 것도 없이 좋은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모님이 나의 진보한 모습을 알겠는가? 매년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영성의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은 보다 평화로워졌고 아버지와 말다툼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사랑과 이해로써 더욱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

방문하는 동안 나는 매 식사 시간 때마다 가족을 위해 멋진 채식 요리를 해냈다. 식탁엔 고기 음식이 여전히 있었지만 말이다. 그리고서 2년이 지난 후에는 부모님의 냄비와 팬, 요리 기구나 식기를 나누어 쓰는 데 있어 불편한 느낌이 없어지게 되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점점 더 편안해졌고 실제적이 되어 입문 전이나 다름없어졌다. 우리 가족은 입문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기쁨, 행복을 부모



님께 드렸으며, 매년 방문할 때마다 부모님은 손자들이 건강하고 키도 크고 행복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하셨다.

그래도 아버지의 고질적인 급한 성미는 여전했다. 아버지는 당시 90세의 병약한 노모와 정신 장애가 있는 40대의 아들을 매일 돌보면서 어머니에게 그 모든 좌절감을 쏟아 부으셨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할머니의 건강과 오빠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었다. 할머니는 거의 100세가 다 된 고령에 갈수록 허약해지셔서 매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돌봐 주셔야 했다. 오빠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신 분열 증상도 심각해졌으며, 아버지에게 거칠게 대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산더미 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전화를 하셔서 어느 때와는 달리 온화한 목소리로 오빠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몰라하셨다. 아버지는 목사나 스님, 아니면 다른 수행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고 생각하던 참이셨다! 아버지처럼 완고하고 호랑이 같은 성미를 가진 사람이 양처럼 약하고 기운이 빠지게 된 것은 분명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에 아버지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나는 보다 원만하고 요령 있는 방법으로 스승님께 인도하고 싶었다.

그날 나는 위로의 글을 써서 스승님의 불찬 CD와 함께 편지를 보내며 24시간 내내 불찬을 계속 틀어 놓고 어려울 때엔 스승님의 법호를 외우라고 말씀드렸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던 아버지는 정말 나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할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매일 불찬을 듣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버지는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

시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말씀하셨다. 몇 개월 뒤에는 아버지에게 스승님의 오디오 테이프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 테이프를 보내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할머니와 오빠, 부모님 모두가 이로움을 얻은 것이다. 오빠는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더 이상 분열 증상이 없어졌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냈으며, 아버지의 견잡을 수 없었던 성미도 훨씬 누그러졌다. 할머니는 청력이 다소 떨어지시긴 했지만 매일 스승님의 불찬을 듣고 동수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신실한 기도와 인내 속에서 어둠은 점차 사라지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 할머니는 잠자는 가운데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당시 할머니에게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 흐르고 있던 불찬은 매장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후로 부모님은 완전채식을 하기 시작하셨고 산호세 동수들이 매주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하곤 하셨다.

올해 8월 부모님을 뵈러 간 연례 방문은 내가 결혼한 이후 21년 이래 가장 즐거운 여행이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당신이 맛있고 건강에 유익한 채식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당신들이 스승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보여 주셨다. 우리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변화를 ‘불가능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로 생각했다. 예전엔 그렇게도 방문하기 두려웠던 사람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바뀌었으니 말이다! 이제는 부모님 집에 전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넘치고 스승님의 사랑에 영원토록 감사를 드릴 뿐이다. 우리가 가슴을 열어 스승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스승님이 못 하실 일이란 그 무엇도 없는 것이다.



## 수많은 천사 수호신과 여신들

칭하이 무상사/ 1994. 3. 9.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09



질문: 스승님, 천사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우리를 돕기 위해 이곳에 내려와 있는 수호천사나 특별한 존재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을 찾아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스승님은 이런 목적의 수호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수호천사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승님: 주문할 수도 있어요. 우편으로 주문했다가 불만스러우면 다시 싸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대중 웃음) 나는 우리가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경지가 낮은 신이나 천사들의 존재를 믿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승을 따르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신을 믿고 정직하지만 비교적 약한 사람을 돕도록 하늘에서 파견한 것입니다.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겐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 대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힘을 갖고 있는 천사들이 가장 힘이 크고 민첩합니다. 그 힘이 비교적 커서 대부분의 상황을 도울 수 있지요. 다른 천사들은 보호하는 대상의 업장을 고려하고 그 개인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힘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이고 또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바꾸길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돕습니다. 때로 스승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른바 ‘천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신으로 제자들을 직접 돕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가 가장 힘이 큼니다. 스승이 일단 나서면 모두들 길을 비키니까요. (대중 박수)

또 다른 종류의 수호천사는 이미 죽은 영혼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혹은 생전의 친척이나 친구, 학생, 혹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막후’에서 그 사람들의 재능이나 지식을 발전, 향상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돕는 존재는 하늘에서 온 천사와 죽은 영혼들,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천사도 등급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중 인간에서 천사가 된 존재들은 신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인간과는 다른 속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천사는 손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우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겐 인간에게 있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천사의 등급은 인간의 등급보다 높지 않습니다. 인간이 천사보다 높지요. 천사들은 이렇게 즉시 만들어질 수 있고(스승님이 손가락을 튕기심) 파괴되거나 주문을 받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인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중 박수)



## 부정적인 힘의 본질

청하이 무상사/ 1994. 3. 9.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09

질문: 『그 빛에 감싸여』라는 책이 새로 출판되었는데, 한 여성이 수년 전에 체험한 죽음과 유사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죽음과 유사한 경험을 한 후 사탄처럼 생긴 마귀에 쫓겨 다녔다고 합니다. 사탄이 인격체로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징적인 악의 일종인지 궁금합니다.

스승님: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부정적인 힘과 긍정적인 힘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입니다. 마(魔)는 우리 내면에 있기도 하지만 외면에 있기도 하며, 또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정적인 힘이 강하면 일단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힘이 제압당하고, 그 다음엔 우리를 둘러싸고 있거나 우리를 겨냥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힘도 어쩔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하고 수행하며 매일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면을 계발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므로 그녀가 소위 '마귀'라는 것을 봤다면 실제로 본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 도처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못 보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긍정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면 쪽으로 기울거나 부정적인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면 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해 줘야겠군요. 불경을 인용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경전의 하나인 『능가경』에서 부처는 인간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으로 온갖 마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거나 공격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일종의 에너지가 되어 서서히 하나의 어두운 힘을 형성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때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 에너지의 경우, 특정 단추만 누르면 형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전기, 전자기 에너지만 있어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때로 우리가 유형·무형의 힘을 창조해 낼 수 있듯이 이런 사악한 힘도 형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에너지의 일종이니까요. 그것은 힘을 키울 수도 있고 형체를 갖춰 마귀나 악마와 같은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힘이라서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출 순 없는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때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은 환영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가 아니지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파괴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형체가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신의 속성이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 악령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시켜 신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두교도들이나 이른바 마법사들은 훈련을 통해 마귀를 다루고 다스릴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떤 목적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견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마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긴 이미 증명된 사실로서, 그들은 에너지를 통해 마를 형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데이비드 닐 여사가 쓴 『티베트의 마술사와 신비』라는 책을

보면, 티베트 사람들은 집중 훈련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활용해 사물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나 형태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승려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나 예쁜 여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에서 천사를 만들어 내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써 우리는 행위와 생각을 통해 고의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마를 만들어 냅니다.

알렉산드리아 여사는 시험 삼아 그 방법으로 승려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승려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처음 만든 것은 매우 명랑하고 유순하며 통통하고 나이 지긋한 승려로 태평한 타입이었는데, 나중에 차츰 힘이 커지자 그녀의 힘에서 벗어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르고 짓궂고 공격적이 되는 바람에 결국 그녀는 온힘을 다해 그를 파괴해야만 했지요. 왜냐하면 일단 그런 힘이 만들어졌을 때 힘이 부족하면 그것을 없애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 하늘의 음악인가, 창날의 음악인가

칭하이 무상사/ 1994. 3. 9.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09

**질문:** 요즘 일부 음악이 특정 분위기나 자장을 조장하고, 요즘 젊은이들과 세계를 그런 음악이 파생하는 사악한 환경에 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지요. 다른 부분은 인류가 수세기를 통해 만들어 낸 온갖 분위기 탓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덧붙이면 당연히 그 힘은 더욱 강

력해지겠지요. 음악은 영향력이 매우 큼니다. 부드럽고 온화하며 우아하고 사랑이 넘치는 음악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이완되며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에 거슬리는 거친 음악을 들려주면 사람들은 미치거나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지 압니까? “당신을 사랑해요!” 같은 노래가 아니라 “탕, 탕, 탕! 쿵, 쿵, 쿵!” 하는 노래입니다. 죽음의 음조와 공격적인 가락을 군인들에게 들려주니 군인들은 끝없이 전진하다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죽이고만 싶기 때문에 살기가 넘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음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태국 소식

### 진리와 아름다움의 향연

[방콕] 관음사자가 태국을 방문한 동안, 방콕 동수들은 2002년 12월 15일 방콕 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스승님의 그림 전시회를 개최해 진리와 아름다움에 대한 스승님의 천상의 메시지를 태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이를 통해 영성의 힘으로 전국이 화합되길 희망하였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 행사에 기꺼이 참여한 동수들은 비디오 강연회 당일 센터 1층에 수많은 색색의 꽃다발과 은은한 천장 조명을 세팅해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창출한 가운데 스승님의 그림을 전시해 선보였다. 이에 덧붙여 손님들은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해 화려한 도자기 그릇에 담아 낸 맛있는 세계 채식 요리를 한껏 즐기기도 했다. 동수들의 따뜻하고 열렬한 환영을 받은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하며 천상의 영감을 받은 스승님의 재능에 깊은 찬탄의 마음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데 이어 한 시간 가량 관음사자 주관으로 열렬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절반 가량의 방문객들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신청하였다. 방콕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방편법을 신청하긴 사상 처음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영원한 해탈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나타냈다. 강연회 후에는 다시 한



태국 풍으로 달콤하게 요리된 각국 요리와 멋진 과일 장식으로 차려진 맛있는 채식 요리.

번 이국적인 풍미가 넘치는 저녁 식사를 제공해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안겨 주었다. 방콕 센터에서의 첫 번째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콕 센터에 정성스레 꾸며진 갤러리에서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방문객들.



청중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스승님의 DVD를 시청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 세계 평화를 위한 연말 선 행사

[방콕]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터라 태국 동수들은 최근 세계 평화를 위한 연





말 선이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의 입문자들은 방콕에서 80km 떨어진 센터에 모여 함께 명상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기원했다.

선 기간 중 ‘입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란 비디오를 시청했을

때 일부 동수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으며, 2000년 한국 영동에서 열린 국제선 비디오를 볼 때는 스승님의 유머 넘치는 말씀에 유쾌한 웃음이

수시로 터지기도 하는 등 우리 영혼 깊숙이 닿은 스승님의 신성한 힘과 무한한 사랑에 단단하던 많은 가슴이 녹아 내렸다. 쏠살같이 이틀이 지나가고 선 행사는 곧 끝났지만, 태국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흠뻑 젖어 이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세계 도처의 사람들과 나누길 바랐다.

## 호주 소식

### 순수한 마음은 도에 가깝다

[멜버른] 멜버른 동수들은 주말인 2002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자연 요법 박람회에 올해 처음으로 참여해 부스를 열었다.

우리는 박람회에서 팸플릿을 나눠 주는 동안 행인들의 재미있는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부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한번 쓱 살펴보고 가던 길을 갔다. 하지만 그 중에는 멈춰 서서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팸플릿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장 호기심이 많은 손님은 당연히 아이들이었다. 아버지의 백팩에 싸여 이동하던 한 아기는 아버지가 우리 부스를 바람같이 지나치려 하자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기 위해 용을 쓰며 그 자그마한 머리를 돌리곤 했다. 두 살 가량의 꼬마 여자에는 우리 쪽에 다가와 자기가 갖고 놀던 색

색의 공 2개를 건네주면서 견본책자에 시선을 두었다. 마치 “이것, 가져가도 되나요?” 하고 묻는 듯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그냥 가져가렴!” 하고 외쳤다.

아이들과의 이런 만남은 우리가 관음수행자로서 어린이와 같은 개방적이고 순수한 열정을 유지, 재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품성은 우리 수행을 발전시키고, 우리 수행은 지구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이 고양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 귀한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 소식

### ‘우리는 모두 하나’ 서울 센터 크리스마스 파티

[서울] 2002년 12월 21일 서울 센터에서는 가능한 많은 동수들의 참여를 유도한, 독특하고도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서울 동수들의 세심한 안배와 전문적인 도움



처음으로 열린 해피요기 패션쇼는 세심한 안무와 음악으로 동수들의 이목을 끌었다.

성 관계 등 예수가 겪은 세 차례의 시험을 뮤지컬과 춤으로 묘사한 작품이었다. 이어서 진행된 익살스런 댄스 쇼에서는 비구니 한 명을 비롯해 다양한 입문자들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는데, 코믹한 공연과 많은 동수들의 참여로 조성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음에 이어진 해피요기 패션쇼는 한국에선 처음 열린 새로운 공연이었다.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동수들이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기쁘게 입고 나와 참석한 모든 동수들로부터 열



여러 동수들의 익살스런 춤 공연.

덕분에 파티는 화기애애하고 멋졌다. 우리는 행사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첫 프로그램은 신약성서에서 언급된 배신과 명예, 여

광적인 박수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연락인과 SM 채식뷔페 담당자, 베지터브 제과점 동수들을 비롯한 많은 입문자들이 서울 센터 동수들에게 보내는 감사와 축복, 기타 의견을 담은 특별한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이번 행사는 너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참석한 모든 입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마음을 한데 모아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 불가리아 소식

### 영성 세미나에서 빛을 발한 스승님의 가르침

[소피아] 2002년 11월 10일 수도 소피아에서 불가리아 요가협회가 주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초월명상 단체, 인도의 구루 스리 친모이(Sri Chinmoy)의 제자들, 하리 크리슈나,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불가리아 센터 등 다양한 수행 단체의 대표자들이 초대되었으며, 각 단체별로 1시간씩의 강연 시간을 배정받았다.

우리 단체의 대표자는 강연에 앞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간략하게 소



개하고 이어서 불가리아어로 된 관음법문 소개 비디오를 상영했다. 그동안 청중들은 큰 관심을 갖고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많은 영적인 질문을 던졌다.

동수들은 또한 세미나장 앞에 스승님의 책과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를 진열하는 한편 전시하는 동안 내내 스승님의 불찬을 틀어 놓았다. 많은 참석자들이 경서 진열대 앞에 멈춰 서서 무료 견본책자와, 센터 주소와 연락처가 있는 전단지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소피아와 플로브디프 시에서 온 동수들은 모두 성공적인 발표에 만족하면서 많은 구도자들이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 독일 소식

### 폭풍우를 무릅쓰고 진리를 구하다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던 독일 동수들은 2002년 11월 6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당일 강한 돌풍과 폭우가 쏟아졌지만, 혹독한 날씨도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들으러 오는 이 지역 구도자들의 열망을 꺾진 못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신실함은 정말 감동스럽기



그지않았다! 강연회 후 청중들은 동수들이 마련한 채식 간식을 함께 즐겼다. 동수들은 모두 이 즐거웠던 행사를 통해 귀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베네수엘라 소식

### 베네수엘라가 스승님의 법문을 열렬히 환영하다

[마라카이보] 지난 2002년 11월 베네수엘라의 동부인 푸에르토 피리투 비디오 강연 흥법을 하는 동안 한 콜롬비아 입문자는 마라카이보에 사는 오랜 친구에게 이 흥법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몇 차례의 강연회를 통해 스승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던 그 친구는 우리에게 마라카이보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전에 콜롬비아 보고타 비디오 강연회를 열심히 도와준 페루 리마의 한 사저도 흔쾌히 도움을 자청했다.



그 첫날부터 스승님은 다시 한 번 사랑으로 모든 필요한 안배를 해주셨고 이에 모든 일이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마라카이보의 친구가 도시 곳곳을 안내해 준 덕분에 우리는 곧 첫 번째 비디오 강연 장소를 구할 수 있었고, 모두들 행사 내내 열

렬한 분위기 속에서 스승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연회는 전신건강 센터의 부속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 또한 매우 성공적이어서 청중들 대다수가 뒤에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방편법을 전수하는 동안 멋진 체험을 했다.

수확이 많았던 세 번째 강연회는 줄리아 주립대학의 공학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또한 방편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을 위해 한 단과대학에서 단체명상을 가졌다. 출석률이 아주 높았으며, 방편법을 전수받은 단과대학의 원장은 정기적인 단체명상 장소로 대학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밖에 방편법을 배운 우르베 대학의 한 교수와 그 친구도 자신의 집을 단체명상 장소로 제공했다. 이렇게 해서 장소가 세 군데나 확보되어

단체명상을 계속하길 원하는 수많은 방편법 수행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스승님의 성스런 사랑을 가득 안은 채 베네수엘라를 떠나면서 이 첫 여행을 통해 많은 영성의 씨앗들이 친절하고 순수한 이곳 주민들의 가슴에 뿌려졌길 희망했다. 이제 곧 마라카이보에는 더 많은 관음 수행자들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결실이 풍부했던 ‘온 생명 박람회’

【토론토】 2002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토론토 센터 동수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온 생명 박람회’에 참가했다. 캐나다에서 자연 건강 및 대체 의학을 홍보하는 장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이 박람회에서 북미 전역 200여 곳에서 출품한 최고의 자연 건강 상품 관련 서비스와 최첨단 연구 자료를 선보였다.

한 영화 촬영 기사는 우리 부스에서 상영한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을 보고는 담당 프로듀서가 전심을 다해 작업한 게 틀림없다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에 매일 명상하면 우리의 지혜가 깨어나고 작업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동수들의 설명에 그녀는, 그래서 스승님의 TV 프로그램이 그토록 전문적인 것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즉각개요 일세해탈’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부스를 찾아온 어떤 남자는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한 소개를 열심히 듣더니 굉장히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테이프를 가져갔다. 박람회에서 CD를 전시한 한 참관인은 스승님의 시집 『잃어버린 기억들』에 특히 매료되었다. 그는 스승님의 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구구절절 주옥같다고 평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랑의 멜로디 4’를 특히나 마음에 들어했다.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던 뛰어난 외모의 한 방문객은 “머리를 기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군요!” 하고 소리쳤다. 이 남자는 필립 스타크먼이라는 정신 치료사이자 생활 양식 상담사로, 약 4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하면서 아시아의 사원과 아쉬람에서 정진한 사람이었다. 스타크먼 씨는 1985년 타이베이의 어느 선원에서 스승님과 점심 식사를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당시 스승님은 비구니로 삭발하신 모습이었다.), 스승님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미소가 대단히 인상 깊었다고 얘기했다.

박람회가 거의 끝나 갈 무렵, 한 동수가 들러서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문하면 5대가 천도된다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 사저는 몇 년 전 딸과 함께 입문을 했는데, 당시 그녀의 친정 어머니는 의식불명인 상태였다. 그러나 입문하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친정 어머니는 정신이 깨어나 아름다운 신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신을 언급할 때 '그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사저는 친정 어머니가 스승님을 봤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또한 죽은 친척들이 잘 있으며 당신도 곧 가게 될 것이지만, 본인 역시 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사

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이번 박람회에서 일했던 동수들은 올바른 인도자도 없이 영적인 세계를 정처 없이 헤매는 구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들이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수행자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수행으로 조상들이 이로움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살아 계신 스승이 있으니 말이다!

## 칠레 소식

### 즐겁고 활기에 넘친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산티아고] 2002년 12월 산티아고 센터 동수들은 입문자와 방편법 수행자 및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해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함께 보냈다.

행사에서 제일 처음 선보인 인형극(마리오네트)은 방문한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모두들 이 기회를 틈타 서로 농담을 나누었고 분위기는 더욱 고양되었다. 이때 몇몇 입문자들은 마이크를 잡고 스승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이렇게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을 즐길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렸다.

다음으로는 센터의 모든 사형사저가 어울려 스승님께 바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새해에는 스승님이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했다. 이후 사

형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동안 사저들이 준비한 맛있는 케이크가 나와 함께 나눠 먹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재미있는 깜짝 쇼가 있었다. 한 사형이 특이하게 개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손님들은 동수들의 유머와 온정, 열정적인 면을 느낄 수 있었으며, 행사는 즐겁게 마무리되었다.



## 미국 뉴저지 소식

### 영성 축제에서의 특이한 경험



사진 1과 2

은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스승님의 법문과 관음법문에 대한 동수의 발표에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축제에서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스 위에 걸린 스승님의 사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한 방문객들도 있었으며,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15개월 된 여자아이는 혼자 용감히 우리 부스 뒤쪽으로 들어와 카세트 앞에 서서 스승님의 성스런 목소리를 가만히 경청하기도 했다. 아이는 자기엄마가 찾으러 왔는데도 떠나려 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스승님의 사진이 들어간 중국 매듭을 꼭 쥐고는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사진 1과 2) 그리고 선

[뉴저지] 2002년 11월 24일 뉴저지 동수들은 뉴욕 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체·마음·영혼의 가을 축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장은 홀리데이 인 호텔의 회의센터였는데, 이곳이 뉴저지 북부의 주요 교통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덕분에 다른 주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참석했다. 이 축제의 주제가 영적 수행이었기 때문에 방문객들 대부분

과 자기 것, 두 장을 달라고 했다. 당황한 그녀의 어머니는 이 애가 여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해했다. 어린 소녀는 재빨리 자기 전단지를 펼치더니 스승님의 사진을 향해 “하이!” 하고 인사해서(사진 4) 동수들을 미소짓게 만들었다. 그 후 아이는 스승님의 강연 DVD를 시청하면서(사진 5) 한참이나 머물다가 겨우 자리를 떠났다.

뉴저지 동수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함께 일하고 배우는 한편 이 지역의 다른 수행 단체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다. 정말 ‘깨달은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정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동수들은 관음법문의 힘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진 5

집에 있는 귀중품에 보태려고 하는지 부스에 부착된 전단지를 뜯어내려고 애썼다.(사진 3) 동수들이 얼른 전단지를 한 장 건네주었지만, 꼬마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엄마 것



사진 3과 4

## 미국 코네티컷 소식

### 뉴잉글랜드 소도시의 복음

[그로톤] 2002년 11월 17일은 많은 동수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이날 동수들은 뉴잉글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코네티컷 주의 작은 도시 그로톤에서 모두 힘을 모아 일함으로써 첫 번째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냈다.

그로톤의 한 여성은 수년 전 견본책자를 보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큰 호감을 가졌으나 지역 동수들과 연락이 안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어떤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갈 생각이 일어나 갔다가 거기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알리는 대형 포스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흥분한 그녀는 곧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강연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또한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사람들에게서 이미 스승님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해 왔으며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강연회 당일엔 참석한 한 손님은 스승 없이 혼자서 명상 수행을 해 왔는데 스승님의 포스터를 보는 순간 바로 인연이 맺어졌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오직 신께 귀속됨을 믿는다고 말했다. 기독교와 불교에 관한 많은 경전을 공부했다는 다른 젊은 방문객은 경전 속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하였다. 동수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나면 그런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해 주자 그는 뭇 듯이 기뻐하며 그 즉시 방편법을 신청해 지금은 입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나중에 스승님의 축복으로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단체명상 장소를 찾을 수 있었다.

코네티컷 동수들은 1999년부터 스승님의 법문을 지방 TV 방송국에 계속 방영해 오고 있는데, 이번 강연회를 통해 때가 무르익으면 갈망하는 영혼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스승님이 모든 것을 자연스레 안배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비디오 강연회의 축복은 무한하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연 지 몇 년이 흘렀다. 이에 한 동수가 2002년 11월 17일 일요일 브리즈번 시내에서 강연회를 갖자고 제의하자 모두들 두손들며 반기며 준비를 도왔다. 장식품과 진



영적인 시야를 넓히려는 사람들이 경서 판매대에서 스승님의 출판물을 참고하고 있다.





열품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행사 조직, 홍보까지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센터 동수들은 정성과 사랑을 담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냈다.

비입문자들도 열심히 일을 도왔는데, 이틀테면 브리즈번 레크레이션 국에서는 강연 장소를 신속히 제공해 주었고, 한 인쇄소의 사장은 포스터와 전단지외 교정본을 손수 들고 와 동수에게 확인을 받기도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상점들이 문과 창문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친절히 허락해 주었다.

강연회 내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하루 종일 스승님의 강한 사랑과 인도의 손길이 느껴졌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는데, 그들 대다수가 이미 동수들이 제작한 지방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스승님의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강연회를 통해 그들의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고 모두들 매우 흐뭇해했다.

브리즈번 강연회 일을 하는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 동수들은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하였다. 이전부터 있었던 가족 같은 유대감이 행사를 통해 더욱 강해졌으며, 함께 일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값진 경험이 되었다.



브리즈번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활발히 질문을 제기하다.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이처럼 훌륭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포모사 소식

### 종교 박람회에서 평화와 화합을 장려하다

[지아이] 2002년 포모사 종교 박람회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포모사 중부 원린현의(縣) 또우난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각 종교 분파를 초월한 이번 박람회는 대중 교화 및 평화, 사회 화합을 장려하고자 열렸다. 지아이 센터는 이 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 수행의 즐거움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자 하였다.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파의 수행 단체에서 나온 부스들이 각자 독특한 전시를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동수들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민 우리 부스도 젊은 활기와 신의 사랑을 발산하며 많은 구도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첫날 수많은 인파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위썩썩엔 포모사 내무부 장관이 개회식을 거행하고 나서 장룽 웨이 원린 현지사와 주요 지역 인사들을 대동하고 전시장을 순회했다. 저명인사들은 모든 종교와 종파가 모여 함께 신의 축복을 기도하는 이 보기 드문 영성 행사가 사회



포모사 종교 박람회 첫날, 끝없는 인파가 우리 부스를 방문하다.



많은 방문객과 동수들이 관음사자가 주관한 흥법 강연에 참석하다.

의 화합과 협력을 더욱 이뤄 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람회에 전시된 스승님의 예술 작품은 방문객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수많은 불교 승려들이 와서 스승님의 책을 읽었는데, 한 유명한 선사님은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제자에게 “칭하이 스승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고 말했다. 이는 포모사의 대중이 수행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점차 뛰어넘어 진선미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는 징표이기도 했다.

24일 오후 관음사자의 주관으로 박람회장에서 열린 홍법 강연에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그 자리에 있던 동수들은 크나큰 신의 가피력을 느꼈으며, 지혜안을 통해 용신호법들이 그곳을 보호하는 모습과 눈부신 빛이 발산되는 광경을 본 동수도 있었다.

박람회 기간 중에 스승님의 가르침과 예술 작품을 보다 가까이 접해본 많은 종교 단체들이 우리에게 찬사와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 왔다. 게다가 입문과 방편법을 신청하는 인원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서 동수들은 매우 큰 힘을 얻었다. 이에 동수들은 박람회 참가의 중요성을 깨닫는



영성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 전시실.

한편 모든 종교가 이렇듯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세계가 더욱더 번영하고 안정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 새로운 대학 청년 조직이 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다



**[까오슝]** 까오슝 센터에 최근 대학 청년 조직이 만들어졌다! 포모사 남부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다니는 젊은 동수들

로 구성된 이 모임은 같은 신세대들에게 진리와 지혜에 대한 신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대학 내에서 홍법 활동을 펼치고 서로의 우정을 다지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활기차며 다채롭게 수행 생활을 해나가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까오슝 센터는 이 뜻 깊은 대학 청년 모임의 결성을 기려 한 서점에 서 파티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모임의 젊은 동수들은 화기애애하고 정다운 분위기 속에 채식 요리를 즐기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올해 마침 타이베이에서 까오슝으로 공부하러 온 세 명의 젊은 동수들도 이 모임에 합세해 평소에도 센터의 크고 작은 일들을 열심히 도왔

다. 멀리서 온 이 동수들은 비록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나 스승님의 극진한 보살핌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에는 학업을 핑계로 단체명상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센터의 일에도 등한시했지만, 센터의 작업 팀에 합류한 후로는 대중에게 봉사함으로써 사랑이 커지고 영성이 발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은 언젠가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훈련시키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받은 신의 은총을 세계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대학 청년 모임의 동수들은 이런 정신을 되새겨 대학 캠퍼스에서 홍법 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면서 포모사 남부에 더욱더 많은 영성의 씨앗이 뿌러지길 기대한다.



## 지방에서 가진 새해맞이 행사

[창화] 창화 센터는 신정을 맞아 따청 향에 사는 한 동수의 집에서 주변 이웃들을 초대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우선 환경보호 박사인 라이무성 씨가 동수들과 이웃들에게 주방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친화적인 봉지와 식기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후에 채식 성찬을 즐긴 동수들은 따청 향을 돌며 아름다운 팡위엔 해변에 가서 풍경을 즐기고, 옥수수 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고 타조 공원을 참관한 뒤 열슈이 향의 한 과수원에서 오렌지를 따는 등 재미있게 지내다가 오후 4시가 되자 모두들 동수의 집으로 돌아와 바비큐를 했다.



## 스승님의 권고 말씀

스승님께서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이어폰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전화의 경우에도 유선전화기를 사용하고, 무선 전화기나 휴대 전화를 쓸 경우에는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 헌신의 본보기

캐시 도일 사저/ 호주 콕스하버 (원문 영어)

이 영화는 각 개인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의 친구의가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우습게도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고전 영화인 ‘멋진 세상(It’s a Wonderful Life, 1946)’의 주인공인 조지 베일리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겪는다. 미국 뉴욕 베드퍼드 폴스라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 영화 속에서 희생 정신이 강한 조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모두 접는다. 영화 전반에 걸쳐 조지는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자신을 잊고 남을 돕는다.

예를 들어 조지는 아버지의 저축대부조합을 돕기 위해 대학에 갈 기회를 포기하고 지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많은 주민들이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모아 뒀던 저금을 남동생에게 모두 주면서 자기 대신 대학에 보낸다. 그리고 다른 회사(그의 평생 꿈이었던 직장)에서 고액의 봉급과 높은 지위를 제의받았을 때도 가난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그 제의를 거절한다. 조지가 가난한 주민들에게 주택 대출을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영화 전반에 걸쳐 조지는 끊임없이 마야의 시험을 받는다. 마야는 그의 부귀와 직업적 성공에 대한 욕망을 잘 알고 유혹하지만, 조지는 늘 이러한 유혹을 알아차리고 무사히 시험을 넘긴다.

그러나 그는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이 세상

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이에 하늘에서는 클라렌스라는 천사를 파견해 조지와, 그의 헌신적인 정신이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보여 준다. 천사가 조지를 데리고 베드퍼드 폴스를 둘러보는 동안 조지는 곧 이 마을에 가져온 자신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영화는 각 개인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의 친구의가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지의 부인과 아이들은 조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자 하늘에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내려 보내 돕는다. 이 장면은 응집된 의식의 영향력과 단체명상의 커다란 이로움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단체명상에서 같은 이상과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 한데 모여 명상하면 세상과 자신에게 보다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 ‘멋진 세상’은 전반에 걸쳐 스승님이 이 세상에 미치신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일깨워 준다. 스승님이 우리를 도우러 이곳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다. 영화에서 조지 베일리가 소아(小我)를 희생해 온 마을에 이로움을 주었다면, 스승님의 가없는 희생은 지구 전체와 그 너머까지도 이롭게 하신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테이프

### <영어 + 중국어>

#### 741 밀레니엄 전야 공연

1999. 12. 31. 태국 방콕 국제 선육

### <중국어>

#### 742 수행으로 세상을 고양시키자

화상회의 (포모사 시후/ 홍콩/ 중국 대륙)

2002. 8. 4./ 8. 11./ 9. 15.

### <영어>

#### 745 이 세상에 공헌하라

화상회의 (미국 LA 센터/ 휴스턴 센터/

싱가포르 센터)

2002. 7. 21./ 7. 28./ 8. 11.

#### 746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화상회의 (캐나다 토론토 센터/

헝가리 유럽 선행사)

2002. 8. 4./ 8. 17.

#### 747 어린 용과 신선

2002 스승님 생신 경축 행사

2002. 5. 11-13. 미국 플로리다 센터

#### 748 겸손의 시작

화상회의 (한국 서울/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주 시드니)

2002. 8. 24./ 8. 25./ 8. 31.

### <영어 + 한국어 통역 + 몽골어 자막>

#### 694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

2000. 5. 8. 한국 서울 강연

### <영어 + 몽골어 자막>

#### 582 수행의 길을 굳게 결심하라

1997. 5. 9-12.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 2집

#### 658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1998. 12. 18 미국 로스앤젤레스

쉬라인 강당 자선 콘서트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한국어로 된 출판물을 주문하시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el: (031) 772-9250, (02) 577-2158

E-mail: chinghai@unitel.co.kr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G.htm> (한국어)

## 콜롬비아 소식

### 시기 적절한 스승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한 동수가 FINAFES의 책임자인 가르시아 씨에게 스승님의 성금을 전달하다.



영수증

콜롬비아의 ‘즐거운 믿음과 희망의 아동기금’ (FINAFES)은 노숙자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이곳 자원 봉사자들은 매일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 및 의료 혜택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할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 하지만 때로는 제한된 자원들로 인해 자원 봉사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는 임시 건물과 창고를 잃게 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임문자들은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서 홍범을 하던 중 INCCA 대학의 지미 소토메이어 교수로부터 FINAFES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미화 200달러를 기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40호를 참고할 것.)

보고타의 집 없는 아이들의 어려운 실정을 듣고 가슴 아파하신 스승님은 특별히 미화 5,000달러를 보내 이들을 돕도록 하셨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승님의 지시를 받은 관음사자는 즉각 소토메이어 교수에게 전화해 FINAFES 단체장인 호세 일머 가르시아 씨와 접촉을 했다. 12월 27일 동수들은 가르시아 씨에게 아이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 관심과 함께 직접 미화 5,000달러를 전달하면서 FINAFES 단체 소속의 직원들과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내길 기원했다. 이에 가르시아 씨는 깊은 감명을 받은 가르시아 씨는 이 선물에 믿을 수 없어하며 앞으로 아이들이 따뜻한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새해 선물에 대해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했다. 그들에게 있어 스승님의 성금은 진실로 신이 주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원문 스페인어)

감사 편지 

보고타 D.C.  
2002년 12월 27일

칭하이 무상사께

더할 수 없이 기쁜 인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저희 단체에 주신 자비로운 기부금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소원을 들어 준 이 성금은 우리 단체의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물을 구입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매일 1백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무료 급식과 의료 및 교육 지원, 레크레이션 시설을 계속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값진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같은 분들 덕분에 저희는 기쁨과 믿음,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FINAFES 국장 호세 일머 가르시아 드림

## 미국 하와이 소식

### 연말 사랑의 활동 종합 보도

#### 나눔 속에 축복이 있다

2002년 추수감사절 전에 동수들은 매주 스승님의 강연을 방송하는 지역 공영 방송국을 방문했다. 이날 우리는 방송국 직원들에게 맛있는 채식 요리를 많이 대접해 직원들에게 기쁨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우리 또한 이 방송국의 최고 경영자가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뜻밖의 기쁨을 얻었다. 우리는 매주 방영되는 스승님의 TV 강연을 통해 하와이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스승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하와이 센터는 추수감사절에 발송할 382파운드의 식품을 하와이 구 제식품 센터에 기부했다. 하와이 구제식품 센터는 약 300곳에 이르는 하와이 전역의 합법적인 비영리 단체에 식품을 분배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노숙자, 노인, 학대 아동 및 빈곤 가정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하와이 입문자들은 또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이 지역의 노숙자 보호소를 방문해 그곳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우리를 알아본 이곳의 일부 여성들은 우리가 다시 선물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선물을 배분할 때 한 젊은 여성은 자기 몫의 배낭을 자기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 다른 여성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여분의 배낭이 없어서 한 사형이 자신의 배낭을 그 젊은 여성에게 주자 그녀는 동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동수들은 지역 해변 공원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노숙자들을 발

견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공원을 방문해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후 어느 날, 뜨거운 수프와 볶음밥, 계란이 들어가지 않은 패스트리, 주스, 바나나, 감을 세 군데 모여있던 집 없는 이들에게 제공했을 때,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몇몇 노숙자들은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울락 동수들을 보고 매우 반가워했다. 그 중 한 사람은, “이 세상에도 선(善)이 존재하는군. 우린 신을 기억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88세 된 한 입문자의 노모도 함께 음식을 나눠 주는 일을 도우면서 스승님의 축복을 느꼈으며, 우리 모두들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실천하면서 놀라운 사랑의 물결이 우리들 가슴 깊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다!

## 코스타리카 소식

### 희망의 무지개가 재소자들을 감동시키다

[산호세] 2002년 크리스마스 전,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관음사자와 함께 산호세의 산세바스티앙 교도소를 방문해 150명의 재소자들을 위해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다. 우리를 환영하며 사랑과 시기 적절한 도움을 준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은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원했다. 관음수행자들의 신실하고 조화로운 분



위기는 이 날의 행사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관음사자는 말을 꺼내기에 앞서 오는 길에 본 무지개에 대해 언급하며, 그 무지개가 신이 재소자들에게 주시는 끝없는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얘기했다. 이어서 학원생들과 함께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있었던 웃기는 실수담을 이야기하자 재소자들은 아이들처럼 큰소리로 웃음을 터트렸다. 관음사자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자신의 일례를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이른바 실수라는 것을 통해 배우고, 그러면서 점차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재소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사실상 우리 모두 내면에 신성의 완전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스승이야말로 이 완전한 진아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음사자의 말이 끝나자 곧이어 청중들은 주의 깊게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했다. 이어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채식 요리를 즐긴 후 약 2/3 가량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주변 환경이 매우 시끄러웠음에도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명상을 잘 할 수 있었고 내면의 빛도 체험할 수 있었다. 방편법 명상 시간이 끝난 후 새로 태어난 수행자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동수들에게 칭하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또한 단체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다.

강연회가 끝날 무렵, 산타클로스 복장의 한 사자와 다른 동수들이 참석한 재소자들 모두에게 옷을 선물했다. 재소자들 중 한 사람은 최근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힘든 순간에 신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 주신 데 대해 스승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강연회는 정말 아름다운 행사였으며, 동수들에게 있어선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스승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도록 해준 산세바스티앙 교도소의 직원들과 재소자들에



재소자들이 산호세 동수들이 준비한 맛있는 채식 요리들을 즐겁게 나누고 있다.



산세바스티앙 교도소 입소자들이 전심을 다해 설명을 듣고 방편법을 배우다.



게도 감사드린다.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khoda.fsnet.co.uk/godsdirectcontact> (영연방-페르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두알라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가나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케냐	센터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us@intnet.mu
포트 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케이프 타운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 Gilbert Kamgain	
★ 토고	센터	228-4-410-948 228-2-222-864 smtogo@yahoo.com
팔리메	센터	228-2-215-551
로메	Mr. David Chine	
★ 우간다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산타 크루즈	Mr. Wu Chao Shien	591-4625964
트리니다드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 브라질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벨렘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몬톤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h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s. Euchariste Pierre	1-514-494-7511
	Mr. Hung The Nguyen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439-6753 g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라 세레나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보고타	센터	506-2200-753
★ 코스타리카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hotmail.com
산호세		
★ 온두라스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테구시갈파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 멕시코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D.F.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center@adatel.net.mx
멕시코 주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몬테레이		
★ 니카라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마나과	센터	507-236-7495
★ 파나마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아송시온		
★ 페루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쿠스코	센터	51-1-4716472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산 살바도르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미국		
애틀랜타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b>미시간 :</b>	센터	1-248-370-2924 smmicenter@yahoo.com
<b>아칸사스 :</b>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edj@cox-internet.com	<b>미네소타 :</b>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b>캘리포니아 :</b>			<b>미주리 :</b>		
<b>*로스앤젤레스</b>	센터	1-909-674-7814	<b>*제퍼슨</b>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b>*롤라</b>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b>네브라스카 :</b>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b>네바다 :</b>		
<b>*새크라멘토</b>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b>*라스베가스</b>	Ms. Helen Wong	1-702-242-5688
<b>*샌디에이고</b>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b>뉴저지 :</b>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KHOALUONG@aol.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b>*샌프란시스코</b>	센터	1-415-753-2922	<b>뉴멕시코 :</b>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b>뉴욕 :</b>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Mr. & Mrs. Dan Hoang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b>*로체스터</b>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b>*산호세</b>	Ms. Sophie Lapaire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b>노스캐롤라이나 :</b>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Mr. & Mrs. Edgar Shyuan	1-510-276-4631	<b>오하이오 :</b>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Loc Petrus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Mr. Jim Su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b>오클라호마 :</b>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Mr. James Kiet Le	1-303-986-1248 torahi@ureach.com	<b>오리건 :</b>		
<b>콜로라도 :</b>	Ms. Victoria Singso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b>*포틀랜드</b>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b>플로리다 :</b>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b>*케이프 코랄</b>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33-9369 TLHill@comcast.net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Ms. Trina L. Stokes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b>펜실베이니아 :</b>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b>*올랜드</b>	Mr. Michael Stephen Blake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b>조지아 :</b>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4-2098	<b>텍사스 :</b>		
	Mr. James Collins	1-404-292-7952	<b>*오스틴</b>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s. Kim Dung Thi Nguyen	1-808-735-9180 hawaiiictr@hotmail.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b>하와이 :</b>	센터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b>*달라스</b>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773-506-8853 caominhlamtran@hotmail.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b>일리노이 :</b>	Mr. tran, Cao-Minh Lam	1-773-275-6134 ilovesuma@yahoo.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Sang-Yoon Lee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b>인디애나 :</b>	Mr. & Mrs. Duc Vu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b>*휴스턴</b>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b>켄터키 :</b>	센터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DNgyuen376@aol.com
<b>루이지애나 :</b>	Mr. John L. Fonteno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b>매릴랜드 :</b>	Mr. Nguyen Van Hieu		<b>*샌 안토니오</b>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b>메사추세츠 :</b>			<b>버지니아 :</b>	센터	1-703-941-0067
<b>*보스턴</b>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ly@hotmail.com
	Ms. Gan Mai-Ky	1-978-957-7021	<b>*버지니아 비치</b>	Mr. David Young	1-757-588-8468
	Mr. & Mrs. Huan-Chung Li				



davidkyoung@hotmail.com ★ 한국

**워싱턴 :**

\*시에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smchtpe@ms33.hinet.net  
Mr. & Mrs. Loh, Shih-Hurng 886-2-2375-6784  
shloh@ndmctsg.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뭄바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finance1@ue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irn\_up@yahoo.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881  
ya@bezeqint.net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tb.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l3840@pop07.odn.ne.jp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054-532-5821  
houmril@kornet.net  
02-577-2158  
quanyim@unitel.co.kr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853-532231

★ 마카오 macau\_center@email.com  
853-532995  
연락인 사무실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골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lawrance@thefinance.lk	love_source@t-online.de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Wu Peir Yuan	66-1-8248294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nmian	66-53-384128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44722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oceandropjes@yahoo.com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gu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9-611994	
	Ms. Dora Seres	36-1379-1924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지울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로드츠			
★ 포르투갈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s. Lidia Kong	34-91-5470366	
	Mr. Wang Ya-King	34-95-2351521	
말라가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 영국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서리	Mr. C. W. Wo	l.wellers@ntlworld.com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Mr. Phong Minh Tan Do	rosrobbery@aol.com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61-8-9242-1189 61-8-9418-6125 daveb@iinet.net.au 61-8-9244-7661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오세아니아 ***			퍼스	센터	Mr. David Robert Brooks
★ 호주					Mr. Ly Van Tri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 뉴질랜드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오클랜드	Mr.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Mrs. Chang-Wu Wong	649-534-0986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 SM 보석 주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l@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고, 포기하거나 수행을 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수행에 흥미를 잃고 답답한 상태가 되면서도 대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합니다. 이때는 서둘러 '보약'을 섭취해야 합니다.



## 수행의 겨울엔 정신적 보약이 필요하다

청하이 무상사/ 1989. 2. 13-18.  
포모사 시후 선철 (원문 중국어)  
MP3-4

날씨는 늘 변덕이 심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가끔 날씨가 아주 좋을 땐 우리는 활기차고 가뿐하고 즐거우며 근심걱정도 없게 됩니다. 마치 수행이 잘될 때와 같지요. 그때는 모든 게 순탄하고 계율도 잘 지키며 명상도 매우 안정적이고 신심도 강하고 가정은 평화롭고 일, 사업도 잘되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승이 우릴 축복한다거나 불보살이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게 됩니다. 계율도 흔들리는 것 같고 신심도 줄어든 것 같으며, 수행은 퇴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괴롭습니다. 그때가 바로 '수행의 겨울'입니다. 수행이 순탄할 때는 '봄'이나 '여름'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날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이 있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로 매일 똑같은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고, 포기하거나 수행을 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수행에 흥미를 잃고 답답한 상태가 되면서도 대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합니다. 이때는 서둘러 '보약'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고 추운데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체력이 달린다고 느껴지면, 바로 한의사를 찾아가 보약을 지어 먹거나 영양 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끼니를 더 늘려 먹는 등 하면서 봄까지 버틸 체력을 키웁니다. 봄에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고, 또 여름에는 아주 적게 먹어도 오히려 몸이 편하고 겨울처럼 피곤하거나 기분이 처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수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겨울과 같지만,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수행의 겨울'을 맞게 될 때에는 혼란스럽거나 퇴심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속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수행의 진보도 없는 것 같고 수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은 만사가 불만족스럽고 상황도 순조롭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설령 실수를 하고 수행이 퇴보하고 신심을 잃어도 자신을 용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둘러 '보약'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선에 참석한다거나 스승과 동수들을 많이 만나고 단체명상에 자주 참석하고 스승의 책과 테이프 등을 많이 보고 듣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신적 보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봄'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기분이 훨씬 나아져 그런 보약이 그리 많이 필요 없게 됩니다.





디자인 - 칭하이 무상사



## 최신 유행의 멋진 겨울 평상복



*Happy Fogi*



무상예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의 평상복이 출시되었다. 도회적인 경향의 세련되고 화려하며 멋진 스타일에서부터 집에서 가볍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은 즐거운 수행자로서의 톡톡 튀는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순면 티셔츠와 긴 바지(평상복)

두터운 면직물로 따뜻하고 간편하다. 별이나 달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는 연노랑과 핑크의 크루네, 폴빛과 연노랑의 V넥 스타일 등 4종류가 있다. 집에 있을 때나 운동할 때 이상적인 평상복.

### 벨벳 처리, 지퍼 달린 2색 풀오버

독특하게 재단된 네크라인이 매끈하고 우아하다.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두 가지 색이 화려한 지퍼와 잘 어울려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 옷을 입었을 때 날아갈 듯한 경쾌함과 활력이 느껴진다. 흰색과 빨강, 연노랑과 다크 그린, 사파이어 블루와 밝은 오렌지, 청색과 빨강, 연노랑과 사파이어 블루 등의 4가지 색상 조합.

### 고급 벨벳의 모자 달린 재킷

몸에 맞는 독특한 재단. 정교하고 극히 부드러운 플러시 직물 소재로 매우 가볍고 입기에도 편안하다. 활동적이고 맵시가 뛰어나며 유행에 민감한 도시 젊은층의 경향에 꼭 맞는 스타일. 사파이어 블루와 오렌지, 파우더 블루와 다크 블루 등 두 가지 색상 조합.

### 모자 달린 따뜻한 방한용 재킷

플러시 직물이다 듀퐁 하이트렐의 안감을 사용한 이 재킷은 방한,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공기가 잘 통하며 가볍고도 따뜻해 겨울 활동에 적합하다. 운동 애호가들이 추위와 바람에도 따뜻하고 뽕뽕송송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려 깊게 디자인되었다. 다크 그린, 다크 블루, 빨강의 세 가지 색상.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처리된 최신 겨울용 해피요기 컬렉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





# 세상에서 죽고 천상에서 거듭나다

2002년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 행사

자세한 내용은 특별 보도를 참고해 주세요

